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전 지구촌에 두려움이 번지고 있는 이 때에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더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벗어나고픈 두려움, 희망으로 극복했다!

라이프웨이 설문결과 2020년 미국인 피하고 싶은 감정 1위 두려움(41%)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서운 한 해를 보낸 후 더 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설문 결과(American Views on Emotions and Adversity)에 따르면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미국 성인 10명 중 4명

(41%)이 두려움이라고 답했다. 수치심(24%)이나 죄책감(22%)을 말하는 사람은 훨씬 적다. 10분의 1 정도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Americans Most Want to Avoid Fear and Anxiety, Gain Freedom and Safety).

라이프웨이는 지난 9월 9일부터 23일까지 미 전역에서 1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을 물었다(95% 신뢰도, +/- 3.2% 오차율).

두려움이 설문 응답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16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설문조사와는 다르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수치심(38%)이었고 죄책감(31%)과 두려움(30%)이 뒤를 이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2020년 상황은 두려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OVID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위 중에 사회적 불안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광고와 연설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비기독교 종교 신자(57%), 65세 이상 성인(49%), 고등학교 졸업 이하(46%)가 미국에서 가장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백인(25%)과 아프리카계 미국인(30%)은 히스패닉(18%)보다 수치심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백인(23%)과 히스패닉(25%)은 아프리카계 미국인(15%)보다 죄책감을 피하고 싶어 한다.



4년전 수치심이 1위(38%)... 가장 원하는 건 개인의 자유(38%)

희망의 근원

작년에 그들이 겪었던 역경을 생각할 때 미국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의 은행계좌를 살펴보고 희망을 받았다.

2020년까지 미국 성인들의 가장 큰 희망은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40%), 긴밀한 관계(38%), 종교적 믿음(36%), 재정 안정(33%) 순이었다.

맥코넬은 "종교를 가진 미국인의 약 절반이 2020년에 희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어두운 시대에 더욱 빛날 더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과학자 및 전문가의 지식

(19%), 여가활동 또는 재미(17%), 새로운 기회(14%), 작업(13%) 또는 스스로 수행한 연구(10%)에서 희망을 얻은 미국인은 더 적었다. 그리고 미국 성인 14명 중 약 1명(7%)은 2020년에 직면한 문제 동안 희망의 근원이 없었다고 말한다.

희망을 찾기 위해 애쓰는 미국인들은 고졸 이하(8%)와 종교가 없는(12%)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복음주의적 믿음을 가진 미국인의 1%만이 2020년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 반면 그러한 믿음이 없는 미국인의 8%는 그렇지 않았다. 크리스천 중 한 달에 4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2%)은 한 달에 한 번 미만

배에 참석하는 사람(7%)보다 지난해 희망을 보듬고 살았다.

미국인들은 자유와 안전을 원한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미국인은 극복하고 싶은 것(32%)이나 존중받고 싶은 것(24%)보다, 개인의 자유(36%)를 선택했고 8%는 확신하지 못했다. 2016년 라이프웨이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의 40%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 28%는 극복하고 싶은 열망, 31%는 존중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맥코넬은 "2020년의 사건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존중받고자 하는 열망이 줄어들면서 우선 순위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에 대한 저항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종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의 권력 차이를 극복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라고 분석한다.

남성(39%)은 여성(33%)보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원한다고 답했다. 대졸자(44%)도 고졸 이하(32%)보다 자유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꼽았다.

(3면으로 계속)



8·15 광복절과 정부수립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비하인드스토리 (상)

초대 칼럼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해방된 광복절인 동시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다. 8·15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인 미국의 승리로 우리는 값없이 얻어진 선물이었다. 그 후 군정과 공산당의 방해공작으로 혼란의 3년을 지나다가 이승만 박사의 지략과 결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여기서 필자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1948년 8월 15일 뉴욕타임스 조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톱뉴스가 나왔다(The New York Times, 1948. 8. 15. New York, Sunday). 즉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주권국가가 선포되었다. 국가 이름은 The Republic of Korea로 한국말로로는 대한민국(Tai Han Min Kook)이라 하였다" 했고, 대한민국은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를 표방한다고 썼다. 특파원 리처드 J. H. 존스톤은 헤드라인으로 'Korea Set Up Republic'이라 했고, 부제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만에 미군정에 종지부를 찍고 남한 단독으로 주권국가를 선포하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고 우남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國父)였다. 오늘의 한국의 정치권과 교육계와 역사학계는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를 크게 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다. 대한민국이 태어나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이 길길이 날뛰며 얼마나 많은 파괴와 방해공작을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모두 증명된 마당에 여기서 모두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최근에 학계와 정치계는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은 바로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4면

푸른초장 나성근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kbcbooks.com / cjb@1919.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담임목사 청빙

본 교회는 설립 53주년을 맞이하는 PC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주일 두 번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복음 전파와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 온 교회입니다.

신실한 담임 목회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1. PCA 소속이거나 가입에 적합하신 분
2. 정규 신학교를 졸업,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4. 합법적으로 미국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시민권/영주권자)

제출서류

1. 이력서 (본 교회 소정양식) 및 가족사진
2. 최근 설교 2편 (음성/영상 파일 혹은 웹 주소)
3.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력서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kucp.org/pastorinvitation>

제출 및 문의처

이메일(Preferred): PulpitCommittee@kucp.org

우편 주소: Pulpit Committee KUCP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제출마감: 09/11/2021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The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Website: www.kucp.org E-mail: pulpitcommittee@kucp.org

발행인 칼럼

그림자를 판 사나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대는 자신의 그림자를 팔아 부와 명예를 거머쥌 수 있다면 그대의 그림자를 팔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 물론 소설에서이다. 프랑스인이지만 독일어로 그 작품을 쓴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19세기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주인공 술레미가 자신의 그림자를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판다. 술레미는 그림자를 판 대가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돈이 많이 있어도 그림자가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숨어 지내야 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그림자를 되찾으려 하니 그림자를 돌려받는 대신 영혼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술레미는 그 이상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귀중함을 깨닫는 인생들의 이야기 "그림자를 판 사나이."

그림자는 우리들에서 없어져도 별 문제가 아닌듯하다. 그림자는 언제나 까맣한 색깔이어서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그림자를 팔지는 않아도 아예 없애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림자를 걷어차다. 아무리 걷어차고 밟아도 그림자는 같이 살기 힘들고 서럽다고 내뺄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그 그림자로부터 자신이 빨리 도망쳐도 보았다. 웬걸, 그림자도 같은 속도로 따라왔다. 그림자는 결코 떼려야 뗄 수 없었다. 그림자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자를 싫다고 필요 없다고 없애려는 것은 헛고생이요 그림자의 소중함을 경(輕)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낮"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도 필요함을 아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빛"도 필요하고 "그림자"도 꼭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정진명 시인은 그림자를 이렇게 말한다. "허공에 한껏 부풀려진 제 영혼을 위하여 / 그림자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드러눕습니다. / ...높이만을 최고로 알고 중력과 싸우느라 버둥거릴 때도 /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와 / 높을수록 커지는 위험을 길가로 재어줍니다. / 알록달록한 꿈 자랑하며 휘날릴 때 / 화려한 빛깔들을 가장 단순한 색으로 바꿔서 /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품는 습터가 되어줍니다. / 감당 못할 무슨 일로 풀죽은 저녁 무렵이면 /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면 / 지평선 끝까지 키를 늘이고 어깨 다독입니다. / ...한평생 곁에 머물러 날 지켜 주다가 / 무덤에서 비로소 함께 사그라지는 당신, 내 영혼의 짝" 시인은 자기 그림자를 자기 영혼과 평생 함께하는 짝이라고 부른다.

사는 동안 나의 그림자를 멀리하지 말아야지. 그림자는 내 지르는 소리는 없어도 유익한 교훈을 항상 조용히 들려주지 않는가. 또 의리로 말하자면 그림자만한 것이 없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다 내 곁을 떠나도 그림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항상 내 곁에 있지 않겠는가.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원제목은 "페터 술레미의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그림자는 색깔도 그렇고 머무는 위치도 그렇고 언제나 평범(平凡) 이하에 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는 심오하고 환상적이다. 어떤 가격이든 그림자를 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중국, 가짜 SNS 계정으로 친중 선정 활동까지!

BBC 보도, '비영리언론기관(CIR) 보고서 350개 가짜 계정 밝혀내'

350개 이상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친중 선전활동을 하는 한편 반중 세력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비영리 언론기관(Centre for Information Resilience, CIR)의 보고서(Revealed: coordinated attempt to push pro-

China, anti-Western narratives on social media)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비 서구화와 함께 해외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How a fake network pushes pro-China propaganda).

CIR 보고서는 가짜 계정 네트워크가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평하는 중국 재벌이자 망명가 귀족구이를 묘사한 만화를 유포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다고 밝힌 '내부고발자' 홍콩 과학자 엔리명과 도널드 트럼프의 전 정치 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함께 등장한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로이드 살인 사건과 함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예로 든다. "2020년 미국 총기 사건으로 2만명 가까이 사망" 트윗

찾아냈다. 홍보용 표지판에는 선전 내러티브를 추진하는 높은 수준의 활동과 동일한 해시태그의 반복적인 사용이 포함됐다. 새

터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다. AI가 생성한 실제 인물의 프로필 이미지와 달리 스타일GAN(StyleGAN)이라는 일종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생성된 이미지는 역 이미지 검색으로 추적할 수 없다.

사용자들과 플랫폼이 의심스러운 계정을 더욱 경계하게 되면서 허위 정보 캠페인에 가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CIR은 네트워크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다. 합성 이미지는 항상 눈을 같은 위치에 두기 때문에 눈을 일렬로 정렬하면 가짜 프로필 사



비 서구화, 해외 중국 영향력 및 이미지 향상 목적 CIR,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플랫폼과 조사공유

반면 다른 계정들은 이전에 다른 언어로 게시된 것들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CIR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과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의해 중단된 친중 네트워크와 유사하다.

이들 네트워크는 중국 국가 대표 및 관영매체가 홍보하는 것과 유사한 친중 서사를 증폭시켰다.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콘텐츠 대부분은 미국, 특히 총기법과 인종 정치와 같은 분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미국은 인권 침해가 심한 국가로 묘사된다. 가짜 계정의 게시물에는 조지

이후 이 계정은 규칙 위반으로 트위터에 의해 정지됐다

일부 계정은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유린을 계속 부인하며 중국이 최소 100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을 구금해왔다는 전문가들의 말은 "미국과 서방이 날조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IR 보고서 저자 벤자민 스트릭은 "네트워크의 목적은 친중 서사를 증폭시켜 서구 사상을 위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밝혀졌나?

CIR은 이전에 식별된 네트워크에서 선호하는 해시태그를 맵핑해 네트워크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추가로

로 생성된 계정, 무작위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 이름의 계정, 팔로워가 거의 없는 계정도 위험 신호를 제기했다.

일부 계정은 원본 콘텐츠를 게시하기 위해 생성된 반면 다른 계정은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원본 게시물을 공유하고, 좋아요 및 댓글만 달았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플랫폼 리캡틴 모드를 연출하기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종종 '아스트로터핑(astroturfing)'이라고 불린다.

가짜 사람들

가짜 계정 대부분은 AI가 생성한 사진을 사용했다. 컴퓨터

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하면 눈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지, 6명의 눈을 모두 연결하면 완벽한 선을 보여준다.

다른 징후로는 머리각각 주변의 흐릿한 가장자리, 이상한 각도의 치아, 얼굴 주변의 흐릿한 물체 등이 있다.

네트워크 일부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 가운데 상당수가 터키어 이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정은 한때 실제 사용자들의 계정이었지만 후에 도용되거나 판매돼 새 프로필 사진이 추가됐다. (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Services include general medicine, surgery, and dental care.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located at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Services include general dentistry, orthodontics, and cosmetic dent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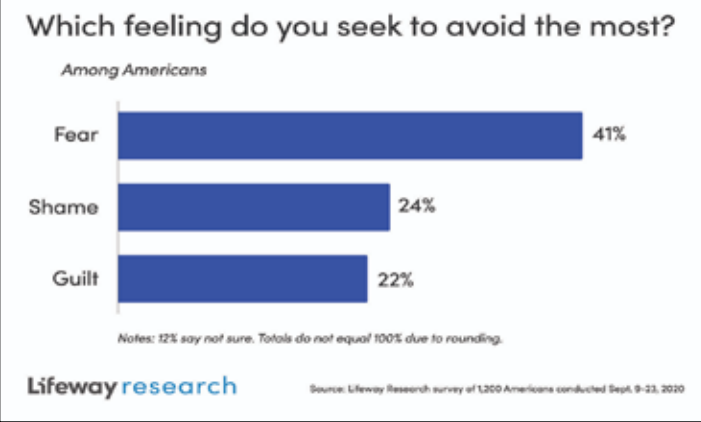
Large advertisement f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Features the seminary logo, name, and a list of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Programs include a 100% online M.Div. program and various theological degrees.

...희망으로 극복했다!

(1면에서 계속) 젊은 사람들은 극복하고 싶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고 노인들은 존경받기를 더 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39%)과 히스패닉계(40%)가 백인(28%)보다 극복하고 싶은 것이 가장 많았다. 라이프웨이에 따르면 미국 성인은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거나(25%) 가족과 친구에게 명예를 주는 것(24%)에 비해, 보안 및 안전(4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성(48%), 50-64세 성인(51%), 65세 이상(55%)과 함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젊은 성인(18-34세)은 자신의 주요 가치가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39%).

옳고 그름

미국인들은 옳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고 압도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보다 삶에서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한다. 성인 5명 중 약 4명(79%)은 정당이 집권하거나(7%) 사회적 인정이나 지위를 얻는 것(7%)에 비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범죄(34%)와 굴욕(11%)보다 불안(46%)을 선택했다. 또한 미국 성인은 법을 위반하

는 사람(29%)이나 커뮤니티를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6%)에 비해 부당하게 고통 받는 사람(60%)이 자신을 가장 화나게 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미국인들은 자유와 ...

(1면에서 계속) 상해 임시정부 안에는 공산주의자와 이승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주창자들과 더불어 있었으나, 다 함께 평화공존모델을 삼을 만하다는 발상일수도 있다. 하지만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사생아라 할 수 있다. 건국일도 모르는 나라 백성은 생일을 모르는 사생아와 같다.

3·1운동의 위대함은 세계적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는 선각자들의 삶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고, 상해 임시정부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연속성 없고, 임정 요원들은 해방 후 한참 후에 개인적으로 한 분석 귀국했다. 김구 선생 같은 독립운동의 대표자는 좌우 합작, 통일한국을 열기 위한 그의 열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도리어 김일성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말았다.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는 하나'에 올인 하였다. 이승만은 김일성이 주도하는 남북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견하고, 김구 선생을 극구 말렸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유엔이 1948년 2월 26일 감시가 가능하고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48년 3월 17일 국회

의원 선거법이 발표되어 5월 16일에 투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5·10선거 준비를 하는 동안 중도좌파 세력과 김구 세력의 5·10선거 반대로 남한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총선 반대 저지를 위한 선거 업무 방해는 무장 폭동 등 다양한 투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

이러한 와중에 김일성이 남과 한 간첩 '성시백'이 내민 김일성의 초정장을 받아 온 김구와 김규식 등 일행이 김일성의 각본에 따라 개최되는 남북협상, 즉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려 1948년

군대의 사열까지 받았다. 김구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국민을 기만했다. 김구를 위시한 남북협상(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파들은 김일성과의 약속에 따라 5·10선거를 철저히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김구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시키려는 메시지를 이미 받았다. 그때 김구는 통일이 될 것을 확신하고 김일성에게 평양에 있는 큰 과수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일성

남북통일, 민족통일과 화해와 평화를 앞세워서 우남 이승만 박사에게 흠집 내기와 이승만 약점 캐기, 이승만 죽이기를 앞 다투어 해왔다. 이른바 역사를 알고 정치를 한다는 학자들과 논객들이 마치 이승만 비판을 해야 신 지식인인 듯 생각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는 모든 교과과정에서 이승만 폄하와 죽이기를 했고, 김일성이 세운 북조선 공산주의 집단만이 정통인 듯이 세뇌시켰다.

어찌된 일인지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부모도 태어난 생일도 부정하는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쇄사에서 벗어나 해방된 광복절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4월 19일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갔다. 바로 이때에 여기저기서 공산당의 무장폭동이 일어나 남한사회는 내란에 가까운 혼란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김구는 남북통일정부를 이상에 함몰되어 현실에 대해서나 국제정치에 너무나 어두웠다(김현태 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범아출판, p.23).

특히 김구가 월북했을 당시 북한에서는 이미 북한헌법이 제정되고, 공산정권 수립의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하고도, 김구 일행은 평양에서 붉은

은 캐히 승낙했었고 문서로 약속했다. 이런 사실이 러시아 외교문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있던 그날, 김구는 말하기를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한 통일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김현태 p.24)고 했다.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기는 해도 철저한 민족주의자로서 남북합작, 민족통일을 염원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공산당에 이용되고 말았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지금도 비판자들은 이승만을 남북분단의 책임자로 몰아부친다. 남쪽의 공산당 박헌영의 계략과 술수로 대한민국은 허마터면 공산화 될 뻔 했으나 박헌영은 도리어 김일성에게 제거되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의 모든 언론, 역사가들, 교육가들은

풀이 되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학자들이 그간의 상식으로 알려졌던 이승만을 재조명하고, 우남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국부로서 애국자요, 위대한 정치가요, 국제 외교가요, 전략가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이 오늘의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덕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한미동맹이야말로 8·15광복절과 정부수립을 맞은 우리가 세계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물이었다.

skc0727@yahoo.com

시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벌써 코로나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 1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단시간에 백신을 개발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를 무력화시키기에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하나로 언급하셨던 '전염병'을 인류는 지금까지 의술과 과학이 눈

부시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무식한 이야기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이에 또 다른 변이를 계속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학계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조절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대 앞에 보여지는 종말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자 The Guardian에서 다루었던 대서양 해류순환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동부를 끼고 있는 대서양 바다는 남쪽 멕시코만에서 데워진 따뜻한 바닷물과 북쪽 캐나다와 멀리는 그린란드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이 천천히 남북으로 돌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AMOC으로 불리는 이 해수의 순환으로 인해 북유럽은 겨울철에도 비교적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해양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해수의 이동이 점점 더 늦어지거나 심지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수의 순환이 정지하게 되면 멕시코나 플로리다 근처의 남쪽 지역은 계속해서 뜨거운 해수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북유럽과 그린란드 지역은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현상으로 인해 남쪽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품은 대기의 이동으로 인해 특정지역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할 해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예컨대 가뭄과 홍수 그로 인한 기근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으로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류순환이 늦어지는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1950년대 무렵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습니다. 바다 해저에 묻혀있는 퇴적물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연구한 결과 지난 1천여 년 동안 지금과 같이 해류순환의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지구의 미래가 보입니다. 현재 인류가 쌓아올린 과학지식으로도 결코 그 흐름을 돌리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창조주의 음성과 그 방향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와 엄청난 양의 폭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21:36). 샬롬.

hankschoi@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휴스턴 한인교회. 탐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초교파, 자체성전보유, 탐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탐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1) 본인 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외분,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로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탐임목사 청빙위원회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일천 번의 기도 서원

필자 나이 스무 살 무렵이었다. 연말 때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였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난 믿음으로 서원기도를 드렸다. '주여! 나도 새해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일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동의 마음으로 일천번 기도를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지만 곧

필려온 걱정으로 매우 당황했다. '아니? 어떻게 일년에 일천번을 기도할 수 있겠니? 그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너무 겁이 났다. '주여! 나도 새해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일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동의 마음으로 일천번 기도를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지만 곧

번 더 가면 되잖아? 응... 그래도 730번 밖에 안 되는데...? 정기예배와 집회만 계속 나가면 될 걸... 그래서 따져 보았다. 주일 오전 오후 104번, 수요일 52번, 금요일 청년회 52번, 토요일 찬양대 연습하러 52번... 다 합치니 990번이었다. 모자라는 10번은 덤으로 추가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나왔다.

새해가 밝았다. 일천번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신년원단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로 교회당이 가득했다. 한두 달이 지나면서 새벽기도회 출석률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쁜 습관이 되었을 때에는 원래 새벽기도가 체질화된 소수의 고정 멤버들만 남았다. 한창 잠이 많은 나이에 새벽 4시에 깨는 일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과 같았다. 그래도 서원을 했으니... 졸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졸자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나가곤 했다. 어떤 날은 잠깐 졸고 눈을 떠보면 텅 빈 예배당엔 나만 홀로 남겨 있었을 때 여러 번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힘겨게 솟아

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시온에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는 발걸음에 감사와 찬양이 솟구치곤 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오후에는 어김없이 예배당에 갔었다. 그 때에 서울 수유리 성결교회에 출석했는데 예배당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맑은 날에는 언제나 공사 중에 날아온 뽀얀 먼지들이 긴 의자 위에 가득했었다. 걸레를 들고 닦아야만 했다. 그 의자들을 닦으면서 우연한 법칙을 찾아냈다. 이름표는 없었지만 모든 교인들이 자기 지정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닦을 때에는 그 자리 주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했다. 세 번째 줄 빈 의자를 닦을 때 홀로 사시는 권사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권사님은 신혼 시절에 남편을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유복자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 아들은 믿음이 없었다. 주야로 그 어머니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얼룩진 그 어머니의 자

리를 닦을 때 나도 몰래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떨어졌다. 여러 달이 지난 어느 주일 예배 때였다. 앞을 바라보는데 그 권사님의 옆 자리에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솟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때 떠오른 성경구절은 가나의 혼인 집에서 물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온 결혼식장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궁궁해 할 때에 오로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였다. 여름날 장마철 오후에 빈 예배당에 갔을 때였다. 공사 중인 본당에 발목에 차는 빗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다. 바지를 걷고서 맨발로 물들을 피내기 시작했다. 한 통 한 통 물을 퍼낼 때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예배당에 물 푸는 특권을 독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솔로몬의 일천번제 일천번의 서원기도는 점점 그 횡수를 채워가고 있었다. 가을이 가고 12월의 성탄절을 감격가운데 보내면서 송년에 맞춰 일천번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를 나는 영영 잊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튼튼한 날개로 무한한 장공을 높이 높이 오르는 독수리가 된 기분이었다.

일년 동안에 일천번의 예배당 기도는 게으르고 나약했던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렸다. 마치 깊이 묻혀 존재를 잊어버렸던 땅 속의 용암이 솟구쳐 화산을 폭발하듯이 일천 번의 기도는 내 안의 열등감과 무능함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부패한 자아의 두꺼운 불신앙의 암반들을 사정없이 터뜨려 버린 활화산이 되었다. 흘러내는 곳마다 흩이든지 나무든지 암반 같은 바윗돌도 녹여버린 용암처럼 일천 번의 기도는 나를 송두리째 태워버렸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고속 열차처럼 서울과 한국을 떠나 캐나다 토론토로, 미국 뉴욕으로... 천성을 향하여 일천번의 기도 약속은 오늘도 54번째의 역을 통과하며 끝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살롯장로교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여쭙는 전통을 수호하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중에도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는 예배생활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앞길의 활짝 열리지만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빛나는 영적 전통으로 이어온 야곱이 누린 축복이다. 그 전통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에서와 달랐고, 이스마엘과도 달랐던 것이요,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역사요, 전통이다.

고백과 같이 "죽어도 여한이 없을텐데"(46:30), 그의 품 안에서 운명할 것을 예언하여 주시었으니 얼마나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인가?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면 언제나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모든 핑계를 뒤로 한 채, 무엇으로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대신할 것은 없다는 신앙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의 전통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고, 야곱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자. 야곱을 따라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더 큰 비전, 새로운 비전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선민으로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아니 반드시 영적 이스라엘로 사명감을 가진다면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말세에 너무 안일하여진 이들을 부지런히 깨우고, 새롭게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뒷걸음질 치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다시 살리는 일은 한도 없이 많다.

예배, 기도, 전도의 전통을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하고, 세계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적은 숫자의 애굽행, 그야말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의 율기 8장 7절 말씀대로 더 큰 비전이 불과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 드리자. 누군가 소수라도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다. 일제의 침탈이 이루어지기 조금 전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단결된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삼일운동을 일으키고, 그 후의 일제 잔혹한 시련과 핍박을 견디었으며, 순교의 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 민족, 동족상잔으로 잿더미가 된 건달 잔해를 불붙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신실한 말씀으로 기도로 후손들을 길러내신 신앙의 조상들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까지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광복절 예배와 함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부탁하시는 대로 기도와 전도로 예배의 훌륭한 전통으로 다시 한 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동행의 축복 속에서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시대를 복음으로 반드시 새롭게 하여 나가기를 원하신다.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야곱 같은 응답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사람은 누구인가?

revskna@gmail.com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

창세기 46장 1-7절

2. 새로운 전통으로

비록 늦었으나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판단이 선다 할지라도 직접 응답 받기 전에는 야곱의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응답하시었다. 야곱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명령이 떨어졌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다. 거기서 크게 변창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창세기 15장 13,14절에서 주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신도 시니는 가나안에 묻힘으로, 또 온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또 하나,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만나기만 하여도, 그의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게 얻도록 하자. 더구나 구약의 신약적인 실천,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태운 수레들(바로가 보낸)... 얼마나 주님 안에서의 생활이 멋이 있는가? 더 큰 비전으로 애굽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게 하시며, 그곳에서 위대한 선민 된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여 마침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니...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할 만하고, 기도할 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을 만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바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오직 이 시대의 선민의식으로 전진하여

1. 예배하는 전통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아들들을 두 번 보내었던 야곱은 모든 시련과 역경, 걱정 근심을 깨끗이 씻고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요셉의 요청대로 온 가족이 가나안 살림을 총 정리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남서쪽으로 45km를 내려와서 가나안을 벗어나는 마지막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명명으로 새롭게 탄생하였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의 조부도 부친도 다 같이 영적생활에 승리한 곳이기도 하였다. 어려운 이웃 그랄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교제하였던 곳이다. 이삭도 어려운 나그네 생활 중에 이웃의 무릎 침탈을 마침내 은유로 끝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장래를 보장하여주시던 잊지 못하는 곳이었으며, 예배하던 곳이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가? 너무

1절의 "희생을 드리니" 곧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곧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일생을 책임져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셔서 마침내 온 백성으로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반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고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였고(창12:10-20) 이삭의 경우 또 흉년이 들어 세계의 곡창지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창26:2) 하나님의 금지로 내려가지 못하였던 애굽으로 가려니 당연히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만 아니고 직접 여쭙고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고 떠나겠다는 자세,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 원인이었다.

우리가 너무 흥분이 되면 얼른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늦게라도 "아니지 이것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을 전진시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앞길의 진정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힘든 펜데믹을 지나면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교회전통이라 하여도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는 전통, 찬양하는 전통, 교제하는 전통,

중국어, 가짜 SNS 계정으로...
(2면에서 계속)
도용된 유튜브 계정으로도 친

중 서사를 퍼뜨려졌다. 이전에 영어나 독일어로 게시했다가 몇 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계정이 갑자기 중국 공식 국영방송에서 중국어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CIR은 이번 연구를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공유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계정을 자사 플랫폼에서 삭제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2019년 9

월 우리는 주로 중국어로 된 생방송과 정기적인 클릭 미끼를 게시한 스펠 활동 네트워크를 삭제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 플랫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연구자 및 업계 관계

자들과 계속 협력해 이 보고서에 언급된 계정처럼 제기 시도를 감지하고 차단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또한 유튜브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네트

워크의 계정을 해지했다. 트위터는 CIR이 식별한 거의 모든 계정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계정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주정부의원 뽑는 시민들의 투표의식, 이래도 안 바뀌려나?

캘리포니아 주의원들, 성매매법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매춘을 쉽게 만드는 SB 357 발의, 이미 1차 공청회 통과! 법안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

SB 357은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맡고 있는 Scott Wiener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민주당 하원의 Assembly Member Kalra가 Principle author을 하고 Coauthor는 민주당 하원의 Assembly Members Carrillo, Lee, Quirk, and Wicks들이 합동제작 발의하였습니다.

SB 357은 사악함은 어디까지인가?

1. 성매매법들이 대낮에도 아무 길거리에서 성매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춘부를 고용한 회사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2. 더 사악한 것은 이 법안은 주로 가정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자란 어린여성들, 그래서 집을 나왔거나 가족들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립대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불우여성, 불우 십대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매춘을 하는 회사들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기에 더 더욱 사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지금 현 조 바이든/카말라 해리스 정부의 "트랜스젠더" "동성애" 로맨스 문화 보호 확장을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동성애 성행위를 위한 매춘부는 더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 SB 357은 아직까지 100% 매춘을 비범죄화 하지는 않지만 대신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나 학교 앞에서 매춘을 하기위해 배회(loitering)했다"는 이유로 매춘부나 그 회사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경찰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의회 공공안전위원회(Assembly Public Safety Committee)는 청문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5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5.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악한 죄를 대낮에 정상이라고 홍보하게 다니며 어린 자녀들 학교 앞에서까지 아이들을 꼬시고 혼돈 시키게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사악합니다!

마태복음 18: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밧줄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지만 이런 발의안이 나온 것이 절대로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 Tvnext 소식을 Follow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황당스러우리만큼 사악한 법안들(소아성애자 정상화-Sexual Orientation으로 들여보냄)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성매춘을 정상화 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민주당전체의 찬성과 계빈뉴스의 서명으로 SB 233이 통과되었습니다. SB233의 범명은 Immunity from arrest인데, 체포면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체포면제가 바로 prostitution 매춘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B 357을 또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3일 국회 의회 공공안전위원회(Assembly Public Safety Committee)는 청문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5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안제나 그렇듯이 80% 이상이 민주당이기에 총 8명으로 구성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민주당 6명 100% 찬성표를 던졌고, 겨우 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100% 반대표를 던져도 숫자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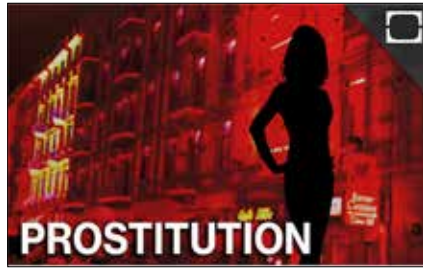
찬성표를 던졌던 Kelly 공화당 의원은 흑인과 황인종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열렬히 반대했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흑인과 황인종 공동체에 소속된 가족들은 범죄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야르토는 동료 의원에게 "이 법안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로 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도구마저도 빼앗아가는 법안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생존자이자 Restoration Ranch Women's Shelter 책임자인 마리안 썬슨은 "거리에서 일하는(매춘) 여성들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부터가 매우 위험한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SB 357에 대한 그녀의 증언에는 그녀

가 알고 있는 한 밤거리 매춘부가 성 구매자의 차에 올라탄 후 조수석 문을 잠가버려서 다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고 강도, 구타, 강간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SB 357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증언은 막달레나 호프(Magdalen Hope)라고 불리는 CA 베이커스 필드에 본부를 둔 반인신매매 기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위너 의원의 캘리포니아의 반 로이터링법에 대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배회'를 금지하는 법이야말로 경찰관이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여성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호프(Magdalen Hope) 이사회 멤버인 앤디 베넷은 '배회금지'법을 통해 구조된 여성들의 케이스를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의원들에게 "경찰의 구금을 통해 삶을 바꾼 7명의 여성과 개인적으로 일해 왔

Kelly 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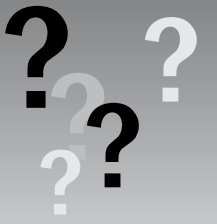


는데, 그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막달라 호프의 설립자인 Doug Bennett 박사는 자신이 2009년부터 만명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다가가고 123명의 여성을 성매매에서 구출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통해 의회 공공 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SB 237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베넷의 연구에서 그는 매춘에 관련된 10명 중 7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10대 초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0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yunlee@gmail.com

Q: 과거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개최함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간에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오늘날 WCC 운동의 문제점을 성경적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버 이희은

A: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는 현재 120개국의 349개 교단의 여러 교회들이 "하나 됨과 공통된 증언과 기독교적 봉사"를 위한 교회들의 교제를 지향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암스테르담 1차 총회에서, 2006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9차 총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방향성과 이에 동참하는 주된 인물들의 신학적인 사상은 성경에서 많이 떠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의 분열원인이 WCC 참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합동은 WCC 참여를 반대하고 통합은 찬성함으로 갈라졌습니다. 결국 통합은 WCC를 2013년도에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 한국 교회적 경사로 축하하려고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합동신학교의 이승구 교수는 광장의 신학에서 "WCC총회의 한국유치는 한국사회에 복음의 예복이나 다른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p.347).

WCC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를 버렸습니니다. 우리는 신구약성경을 정확무오하게 성령으로 영감된 것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WCC는 성경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WCC의 루벤 보고서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 스스로 권위 있는

WCC는 성경을 인간 작품으로 보고

로마카톨릭의 칭의교리, 다원주의 구원론 수용

것으로 입증되는 체험이 있을 때 "성경이 영감되었다"라고 고백해야 하며, 성경의 영감을 미리 전제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율법주의적 견해로 나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칼 바르트적인 신정통주의적 견해입니다. 광신대학교의 황성일 교수는 "W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교회 혹은 교파들이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인권과 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단과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치는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치이며, 이것은 신학적 다원주의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문학 작품들 중 하나로 간주한다."

둘째는 칭의에 대한 여러 입장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Sola Gratia),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Sola Fide) 교리를 선포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WCC는 이제 와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로마카톨릭교회와 받아들인 칭의 교리도 받아들인다고 말하니 이것은 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WCC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며 타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회개해야 한다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김영길 클린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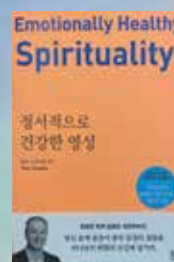
돌파하는 믿음 밥 소르기 스텝톤



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규장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제라드 윌슨 생명의 말씀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르 두란노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황금별

매년 3월 봄 학기를 시작으로 1년 학년제 수업을 하는 한국교 육시스템과 달리 미국 학교는 매년 9월 가을학기로 1년 수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긴 여름방학이 마무리 되는 8월 중순부터 부모님과 아이들은 백투스쿨 준비로 바쁘다. 각 주마다 새 학기 소풍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텍스트프레임도 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지난

1년 반을 버추얼 클래스로 수업을 잘 마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특별히 대학에 가는 신입생들은 가족과 익숙한 지역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21-2022년 새 학기는 교사, 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격정, 설렘, 기대로 다가온다. 아이들이 각자의 스쿨 서플라이 리스트와 쇼핑리스트를 체크하며

오랜만에 들떠있다. 코로나19 세상은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 공연장의 문을 닫거나, 공연을 중단시켰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에 공연기획자들은 팬들이 멀어질까, 또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위로의 선물로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던 온라인공연을 특별히 제공해주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전 세계 유명오케스트라의 공연들을 집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뮤지컬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도 유명하고 뛰어난 공연들을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다. 우연히 세계적인 뮤지컬 "The Witches"와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 등 다수의 곡들과 그레미상도 수상한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이 뮤지컬

들의 작사가이자 뮤지컬 콤비인 미하엘 쿤체의 또 다른 협업 뮤지컬 '모차르트'의 10번 넘버곡 Gold von den Sternen(황금별) 노래를 듣게 되었다. 다른 곡들에 비해 짧지만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가사내용은 듣자마자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 전제적 재능을 가진 아들 모차르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곁에 두려는 아버지와 본인이 원하는 음악과 세계로 나가고 싶어 갈등하는 모차르트에게 내가 원하는 황금별을 찾아 날아올라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도전 하라는 그의 서포터 발트슈타인 남작부인의 노래였다. 독일어 원곡보다 한국 '모차르트' 공연에서 남작부인 역을 열연한 한국 뮤지컬 간판스타 신영숙, 김소현 두 배우의 남작부인 연기와 황금별 노래는 요즘 우리 집과 자동차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자 여길 떠나 저 성벽 넘어/ 그 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험한 세상 너 사는 이유/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봐/ 날아올라 황금별을 찾아 떠나라는 이 희망과 설렘에 가득 찬 노래. 하지만 남작부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 아닌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수단이었고, 결국 모차르트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에 나는 무얼 얻었나. 황

금별을 찾아 해마다 그 빛에 타 버려서 모든 것을 잃었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뮤지컬에 나온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황금별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고국을 멀리 떠나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아직 황금별을 찾아 헤매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황금별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노래가사와 달리 재가 되어 사라져버린 탄식의 황금별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기도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마2:9-10).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모스와 스가라서 지진은 사실...

구약성경 아모스와 스가라서에 언급된 지진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고고학 증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견됐다. 당시 지진은 BC 8세기 때 발생한 것으로, 학자에 따라서는 BC 760~750년경으로 본다. 지진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발생했으며 규모 6-7로 추정한다.



9일 이스라엘문화재청(IAA)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2800년 전 이스라엘을 강타했던 지진의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했다. 당시 지진의 증거는 그동안 하술, 가드 등 이스라엘 곳곳에서 발견됐으나 예루살렘에서 지진의 증거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모스와 스가라서에 등장하는 지진은 동일한 지진으로 해당 구절 내용은 이렇다.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암1:1).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습14:5).

이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번 발굴은 예루살렘 울드시티 남동쪽 다윗 성국립공원(City of David National Park)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IAA는 부서진 그릇과 램프, 조리 기구, 항아리 등을 포함해 건물의 벽이 무너진 이후 파괴된 층이 드러났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발굴 책임자인 조 우지엘과 오르탈 칼라프는 이번 지진이 고대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하고 피해가 큰 지진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안 기독교가정 급습 아바 체포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 가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중국 원수이현 공안당국이 지난달 흡스쿨링하는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를 '테러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자료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전했다.

체포된 자오웨이카이씨는 타이위안성청개회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교회 담임인 안엔쿠이 목사와 함께 청두의 화시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무신론을 가르치는 중국 공교육에 세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집에서 교육해왔다(사진).

이에 공안당국은 자오씨에게 흡스쿨링 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자오씨 집을 급습해 책과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했다. 자오씨와 아내 리신씨는 타인에게 개종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각각 15일과 하루 동안 행정 구금됐다.

자오씨는 지난달 7일 두 번째로 행정 구금돼 있다가 테러혐의로 같은달 20일 긴급 체포됐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자오씨 부부는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집에서 기독교적

으로 교육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흡스쿨링을 이유로 행정 구금한 데 이어 테러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기독교 가정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간섭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무장세력 테러로 기독교인 7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풀라니 목동 급진주의자들이 배후로 지목된 테러로 7명이 사망하고 약 300채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아이리 그웨개발협회(Irigwe Development Association)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풀라니 무장 세력이 7월 30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플라토주 미양 고지구의 마을들을 공격했다.



성명은 이번 공격으로 약 100에이커에 달하는 농지가 파괴되고, 최소 250채의 가옥이 불에 탔으며,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또 무장 세력들이 여러 집단으로 조직되어 농작물을 파괴하고, 각 가구들을 약탈한 후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에제키일 비니 IDA 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까지 잔와라, 카파추두, 크파텐비엔 등 일부 지역에서 풀라니 무장괴한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9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비니 회장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총 275채의 가옥이 불에 탔고, 여성, 어린이, 노인 등 2만 2천 명의 실랑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양고지구의 인근 지역 마을과 조스 지구로 이주하고 있다.

단주마 디슨 아우타 IDA 사무총장은 데일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이 집을 잃고 농장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해됨에 따라 정부와 보안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인 마나바스펀드는 이번 공격이 주로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풀라니 목동 옹호단체인 '미메티 알라 가족사육협의회'의 누라 무하메드 회장은 공격의 책임이 풀라니족이 아닌 아이리그웨 청소년들의 소행이라며 지난 주말 동안 풀라니족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더 선 뉴스에 따르면 플라토 중앙지구 의약품 및 마약 상원위원회 의장인 히스기야 아우바 담카 의원은 보안기관에 범죄 가해자들에게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담카 상원의원은 "리움, 바킨라디, 바사, 조스 사우스 및 스티스트 지역사회가 연일 강도 높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농지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불구로 만들었으며,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격이 무시해서는 안되며 사법부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내부의 지역 담당자가 피해 지역을 방문해 공격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담당자의 말을 인용,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의 신앙을 이유로 총포를 아래로 떨어지도록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은 상황을 진압하기는커녕 오히려 풀라니 편에 섰다"며 "제부미양고지구의 집은 수십 채의 다른 집들과 함께 불탔다. 보안군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탈자

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아랍브라에 본부를 둔 '국제시민자유 및 법치 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이미 3,400명 이상의 나이저리아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현재 나이저리아는 인구의 절반가량인 9,5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살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 신자의 수와 엇비슷하다.

바이든, 국제종교자유위 대사에 무슬림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대사에 최초로 무슬림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파트너십 및 글로벌 참여 담당 이사인 라사드 후세인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사로 임명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이슬람협력기구 특사 및 미국 대테러전략 통신 특사로 활동해온 그는 1998년 이 기구 출범 이래 최초의 무슬림 대사가 됐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전임 대사는 2018년부터 샘 브라운백 전 캔자스 주지사가 맡아왔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연임을 거절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이었던 대사직이 채워지면서 미 복음주의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전했다.

브랜튼 레더우드 남침례교 산하 윤리와종교위원회(ERLC) 대의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 같은 역약적인 정권교체로 맞서 자유를 위해 담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마찬가지로 국제 종교 자유를 위해 미국 대사를 지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임명을 우선순위에 둔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하며 확정을 앞둔 후세인 대사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의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기독교지도자회의(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조니 무어 의장은 성명을 통해 "특정된 생각,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었지만 국제적 종교의 자유는 계속해서 초당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인 그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나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중국 공산당의 비양심적 대량학살 노력에 맞서기 위해 다양하고 거대한 협력의 벽을 계속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 코리 포터 최고경영자는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지표"라며 "후세인 대사가 전임자들의 뛰어난 업적을 기반으로 전 세계 종교, 신앙의 자유 증진과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그밖에 홀로코스트 연구 학자인 데보라 립슈타트를 반유대 의감시 및 퇴치를 위한 특사로 임명했다.

부스터샷 시작한 이스라엘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3회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부작용이 2차 접종 당시와 비슷하거나 적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로이터통신은 8일 부스터샷을 마친 이스라엘



국민 4500명 중 88%가 2차 접종 때와 증상이 비슷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부스터샷이 시행된 후 나온 첫 설문조사 결과다.

이스라엘 최대 건강보험사 클라릿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8%는 부스터샷 후 며칠 동안 겪은 증상이 2차 접종 때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한결 낫다고 응답했다. 부작용을 호소한 응답자는 31%였는데 접종받은 팔 근육 주위에 대한 통증이 가장 많았다.

반면 심각한 증상은 거의 없었다.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0.4%에 불과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고려한 응답자도 1%밖에 되지 않았다. 란 발리세르 클라릿 최고혁신책임자는 "초기 결과에 불과하지만 2차 접종 때와 부작용을 비교할 만한 자료"라며 "대부분 부작용은 2차 접종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3차 접종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는 사실상 '부스터샷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부스터샷 대상자 중 33% 정도인 42만여 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이르면 내달 부스터샷 발표

미국 보건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계획을 내기로 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식품의약국(FDA)이 9월 초까지 부스터샷 접종 대상 및 시기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접종자 등에 대해 이달 내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의 신속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은 사람들이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스터샷은 미국 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의돼 왔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6500만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이지만 최근 두 달 사이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동안 델타 변이 비율은 3% 남짓에서 93%로 치솟았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면역취약층은 2회 접종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가능한 빠르게 부스터샷을 공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부스터샷으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인구 전체에 부스터샷을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 내 부스터샷보다 현재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공급이 일부 국가에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중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고 영국, 독일, 칠레 등 일부 국가는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종교적 관용

한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개신교 목사가 절을 찾아가 불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공영 TV에 방송되었다. 2003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모습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개신교 관계자들이 이는 우상숭배 행위라며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신교가 결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며 관용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서 그는 기독교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틀 안에 신을 가두어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답하였다.

결국 그는 학교에서 해직되었다. 그의 태도가 착각 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한국 종교계 전체가 들쭉거린 큰 문제로 확산되었다. 보수적 개신교계에서는 그의 해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에 맞선 소수의 진보적 신학자들과 여러 불교 및 가톨릭 단체들은 그를 지지하여 복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는 타종교를 존중하지 않으며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우 전투적이었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비하하는 매우 언짢은 호칭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했다. 결국 그는 법정싸움에서 승리하여 복직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강의와 저술활동을 통해 노골적으로 비전통적인 종교관을 드러냈다. 그는 불교와 기독교의 구원론의 구조가 서로 통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찰을 찾아가 불상을 부수거나 땅 밟기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대할 때가 있다. 종교인들은 타 종교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상식 밖의 행동으로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언급하면, 즉각 기독교는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자들이 무척 많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사상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벅차게 느껴진다. 개신교와 타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예 관심을 꺼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 지닌 유일성을 부정하고, 타 종교에도 근본적으로 같은 동일하게 주어졌다하며 '종교의 일치'를 주장할 때에도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교회 제

도를 가졌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는 동일하기에 얼마든지 한 몸으로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구교와 신교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 되면 개신교 교회 강단마다 16세기 개혁자들이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하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비록 한 뿌리를 지니고 있지만 가톨릭교회가 지닌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과 전통으로 인해 함께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구교와 신교 사이에 다른 것을 있지만 매우 경미하

알렸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였으나 분열된 상태에 머물러있는 동방교회 및 개신교가 한 분의 그리스도를 공유하기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일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가톨릭교회를 방문하거나 미사를 참석한 경험이 있는 개신교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친근감을 느꼈을 것이다. 개신교에서 부르는 찬송을 개사하여 미사 도중에 사용한다. 일반성도도 구성된 찬양대가 미사에 참여한다. 신부들은 강설시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심지어 평신도 주일을 설정하고 교회의 중요 구성원이 사제만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개신교 교인들에게 다가 오고 있다.

겉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인정하기에 이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힘을 입어 종교다원주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들은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가 있기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하나같이 궁극적인 실재인 하나님이란 정상에 오르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해석한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간의 갈등을 회피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를 주장하

두고 서구교회 토양에서 자라난 것이지만 향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1886-1968)가 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있기에, 복음을 듣는 적이 없는 사람, 즉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의명의 그리스도론'을 주장하였다.

영국의 신학자 존 힉(1922-2012)은 칼 라너의 그리스도중심 신학을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은 '신중심 신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한 신을 섬기지만 사실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동일한 구원에 이르는 종교다원주의의 교리가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고 향후 발전되었다. 힌두교 아버지와 가톨릭 어머니를 둔 라이문도 파니카(1918-2010)는 모든 종교들의 인간 안에 내재하는 로고스를 반영함으로써 종교적 경향이 일치하기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로고스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석가, 마호메드, 공자, 라마 역시 보편적 그리스도로 나타난 역사적 인물이다. 뉴욕 유니온신학교의 폴 니터(1939-) 교수는 기독교를 상대적 종교로 이해하였다. 모든 종교가 초월자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신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변신환 교수가 1980년대에 그와 유사하게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신중심' 신학에 입각하여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선언을 하였다. 결국 그가 속하였던 감리교단은 동양종교에 심취하여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던 그를 목사직에서 면직시켰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0)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26) - 종교다원주의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타종교와 대화(종교적 일치)는 불가능 교회 일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며 도리어 이웃사촌과도 같은 신앙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중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 약 15세기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 타 종교에 대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한 예로, 가톨릭 성도가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가 받았던 영세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입교 예식을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수적 가톨릭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학자들보다 성경의 권위와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해석이 전통적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교회는 개신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교인들이 구교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1960년대 이후 가톨릭교회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톨릭교회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지녔던 과거의 도도한 이미지를 포기하고, 더욱 친근하게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3세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모였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결정된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선포하고 이를 세상에

타종교와의 대화

한편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향후 타종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개신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계기가 된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들이 결정한 교리적 구성 중 제2장 '하나님의 백성' 항목 16조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정된다는 사실을 결정하고 기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게 하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비그리스도인조차도 성실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영원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무용지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 후 가톨릭교회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이슬람, 불교, 유대교 등의 타종교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여 좋은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대화란 이는 근본이 다른 종교이나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종교적 일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가톨릭교회가 타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자들을 배타주의로 몰아세운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한다. 종교적 독선을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편집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대한 기록은 그를 신화적 존재로 묘사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 작업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일 루터교 신학자 루돌프 블트만(1884-1976)은 성경의 비신화화를 시도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신화적인 이야기를 모두 삭제해야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폴 틸리히(1886-1965)는 문화와 종교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근거로 기독교인은 타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동양종교는 기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비록 종교다원주의는 오랜 세월을

유일한 구원종교

현재 종교 간의 대화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 비서구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반서구 감정이 높아지면서 동양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필수적으로 여기는 WCC가 대교회연합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교회의 일치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타종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하면서 타종교를 수용하는 일은 어떤 형태라고 거부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세계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타락한 인류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이다.

covenantcho@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with 6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etc.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8)



제 6장 겸손하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나태함에 대해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장차 우리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작정이려면 먼저 그는 과거 죄에 대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참 변화가 일어나려면 상당한 마음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양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지도자들은 양들의 죄를 지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도 자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끄러움은 우리 인격에 미치는 것이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사만 받고자 시기하는 것이요, 또 그들의 설교가 육신적 회중의 마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전혀 깨우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는 흔히 생각하듯이 성직자들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며 은혜의 역할은 우리 안에 겸손을 심고 키우는 것이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한낱 장식품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용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내게 배우라"

람이 결코 박식하거나 현명해질 수 없다.

2)지루하고 따분한 설교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일에 헌신한다면 대개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또 보다 더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설교단에 올라가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일깨우려고 애쓰라. 그래야 졸고 있는 죄인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설교의 내용뿐 아니라 설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전9:10)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설교 같은 일은 정말 혼 힘을 다해 열심히 행해야

기거나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3.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심과 배치는 세상 관심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나친 세속적 관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세상 풍조를 따름으로써 그러하다.

2)세상일들을 너무 걱정함으로써 그러하다. 우리는 세속적인 염려가 너무 많지 않은가?

3)자신 사업을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하다. 우리는 자선행위와 주님께 대한 봉사를 넓히는 데

교만은 색욕보다 더 큰 죄, 겸손은 절제 순결보다 더 필요한 덕 목회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 관심에 너무 쏠려 있으면 안돼

우리의 직분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도 그 영광이 우리의 죄를 막지는 못한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1.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악하고 분명한 죄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다. 이 죄는 우리 중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도 널리 퍼져 있는데 다른 이들의 교만보다 우리들의 교만은 더욱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교만은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 대해 시기심과 증오를 갖게 하며 무슨 수를 쓰든지 목자들의 영광을 퇴색시키거나 그 명망을 실추시키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교만은 설교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든 형제의 은사를 통해서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설교가 우리 설교보다 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11:29)고 하신 주님을 말씀에 따라야 한다.

우리의 업무는 양들에게 겸손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겸손을 설교하는 교만한 목회자는 적어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더 큰 은사 취함이나 색욕보다 더 큰 죄이다. 그리고 겸손은 절제나 순결보다 더 필요한 덕이다. 우리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 일에 올바른 원칙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만은 아무 특별한 은사 없이도 이를 이룰 수 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2. 사역에서 경솔하고 부당하게 우리 자신을 열심히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1)공부를 대만히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제대로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없이는 사

한다. 또 필요하면 때에 따라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열을 올려야 한다.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뿐 아니라 목사의 설교 태도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다. 대부분의 회중들에게는 설교자의 음성과 어조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우리와 회중들은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양들에게 전해야 하는 위대한 일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증거를 다 동원하여 양들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모든 혼계와 경고를 통하여 그들의 헛된 반대를 무찔러서 기필코 그들이 진리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갈급한 회중들을 불쌍히 여

인색한지도 모른다. 자선행위는 편견을 강력하게 제거해주며 경건의 말씀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회심을 막는 큰 장애 중 하나도, 편견을 제거하는 훌륭한 수단 중 하나도 목사 자신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일반적 자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건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바쳐져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5:8).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친족과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두어 교회가 공동 부양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9면으로 계속)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시91:1).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전능하신 분과 유일한 교제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연마하여 지존자와 은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영역인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영숙, 2005)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마땅히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창조자 되신 그분을 닮아 따라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그분은 변함없이 가장 좋은 영원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는 우리가 생각, 감정,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자신을 표현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창작물로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성을 가득히 부여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그대로 닮아 온 땅을 다스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분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의 성품이 세상의 그릇된 영향을 받아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흉내를 내며 사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격이 맞지 않아 못살겠다고 소리칩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서로 미워하며 담을 만들고 삽니다. 고독한 관계들 속에서 고립된 채 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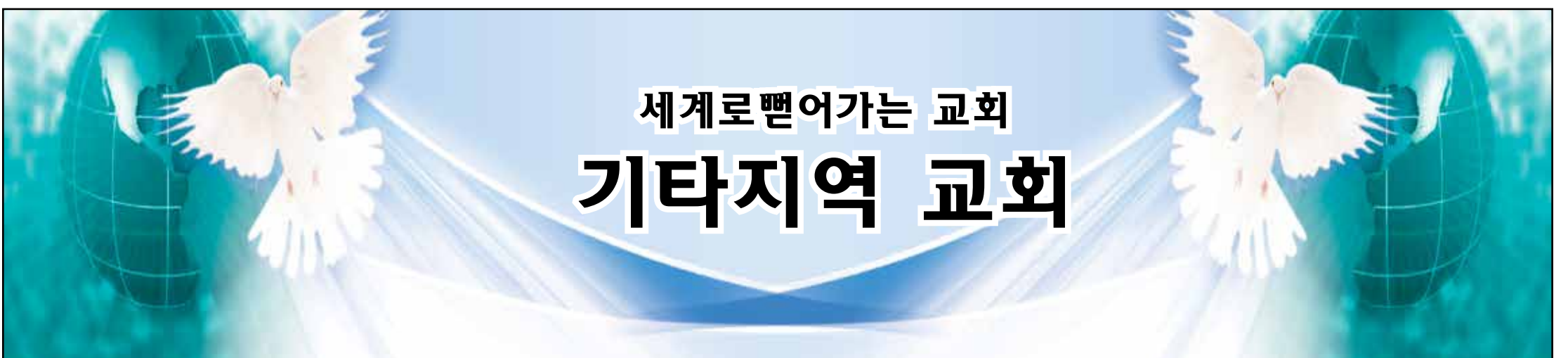
그 결과 현대인들은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대안으로 소극적인 관계 맺기를 미덕으로 내걸고 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일종의 기폭제가 되었지요. 서로 적게 느끼고, 적게 관여하고, 적게 경험하며 살아가려는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내면의 고독들을 해결할 수 없어 발버둥 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그분을 닮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 그분을 닮아가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교육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나 모든 시대에 해야 할 과업입니다. 이 과업이 성취될 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한 가치로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개발하고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귀한 현대인들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43:4)라는 우리 주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인 나의 성품을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통로가 될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성령강화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찬양 연주: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p> <p>Tel. (773)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Horsham,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on, MA 01748</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미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예수의 행복론(4):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부자이지?” 특히 현대인들은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돈이 사람의 격을 만들기도 한다. 여인들이 매일 얼굴 마사지를 받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주고 명품 옷과 가방을 메고,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비싼 자동차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의 격이 달라 보인다. 한국에서는 비싼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면 벨보이들이 달려 나와서 반갑게 환영하는데, 경차가 들어 가면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한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동차의 가치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도 다르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고급차를 구매한다.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고들을 보라. 광고는 온갖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것을 가져라, 저것을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라고 충동질한다. 미국은 바로 그런 시장경제 체제의 본산이었고 우리는

그 미국에 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유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인격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상가인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 지향적인 삶과 존재 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말한다. 소유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추구한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열정 때문에 이 사회에 계급이 형성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한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사

회적 책임은 무시하고 개인주의와 사회적인 갈등이 가속화된다. 소유 지향적인 사람은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모적이고 파괴적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유 지향적인 삶은 더 많이 소유를 위해서 경쟁하므로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에리히 프롬은 존재 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존재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며, 서로 조화하고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하여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내면과 정신의 삶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에리히 프롬은 기독교인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는 그의 책에서 성구를 많이 인용했다. 비 기독교인이 이런 삶을 추구하

니, 우리 기독교인은 더 크게 도전받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 나눔과 배움을 통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가?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마19:21)고 말씀하셨다.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 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자신이 가진 소유로 타인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사람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

dik0184@yahoo.com

시라큐스한인교회 담임 지용주 목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라큐스 한인교회 난민사역이야기

뉴욕 주에 위치한 시라큐스는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시라큐스 인구의 약 10%가 난민입니다. 수단,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미얀마, 콩고, 부룬디, 캄보디아, 브라질,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베트남, 중국, 부탄, 아르메니아,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거주 중입니다. 미얀마, 부탄, 소말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Refugees in Onondaga County: Where are they from? When did they arrive?” by Peter Allen and Michelle Breidenbach on http://www.syracuse.com). 난민들은 부푼 꿈과 설렘을 가지고 이 땅 미국에 들어오지만 그 중 대부분의 난민들은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난민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해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이 지역 민족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교전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 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느 한 나라,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열방에서 온 민족들이 우리 이웃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찾아 그 나라로 가서 만나야 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미 우리 이웃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열방에서 온 그 민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보아즈프로젝트는 이방 여인 룻에게 베풀었던 보아즈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 룻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보아즈가 되어 이방에서 온 난민들에게 참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사역입니다.

복합기, 가을학기에는 10주 과정으로 컴퓨터 수업과 영어 위 10-40도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박

1:1), 두 번째 학기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요3:16)를 주제로 하여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Lodi Mission(로다이미션)이 이루어집니다. 난민 친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Lodi street



가정방문 출발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 직접 나아가 그곳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Lodi Summer Camp”를 실시합니다. Lodi street에 있는 지역교회를 빌려 난민 어린이들을 초청하는데, 최근에는 난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의 빈민층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일간의 캠프에서 “글 없는 책”이 보여주는 다섯 가지 색깔(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로 Bible class, Art class, Game class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미리 선정한 난민들의 가정 방문하여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Drive Thru” 방식의 Lodi mission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Lodi mission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Comfort, Comfort my people)(사40:1)는 주제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다섯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라큐스 지역에 있는 난민 이민교회들을 컨택하여 그 교회 목사님들께서 추천해주신 가정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컨택한 결과 연결이 된 African Free Methodist Church, Syracuse Myanmar Baptist Church, Cornerstone Christian Church, El Shaddai Ethiopian Evangelical

Church, The Syracuse Chin Christian Church(Myanmar), 그리고 난민구호단체 Hopeprint를 통해 총 36가정을 방문했고, 약 130명의 어린이들을 만나 200명이 넘는 난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청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함께 모여 생필품, 식재료, 마스크, 말씀카드 등의 패키지를 준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간식과 약간의 학습품을 넣은 구디 백을 만들었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주제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게 될 가정들, 함께 참여하는 섬기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노란색부터 마지막 날 초록색까지 색깔을 맞춰 셔츠를 입고 모여 Ride Team은 미리 방문할 가정들을 돌면서 동선을 확인하고, Delivery Team은 전달할 패키지를 옮기

고, 전달하며 만나는 가정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줄 팀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함께 차로 이동하며 기도로 지원할 여러 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모여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차례 차례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면서 미리 방문할 가정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도착하면 함께 만나 “Surprise”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과 위로의 말씀, 기도를 전했습니다. 놀리며, 반가워하며,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이 사진 찍는다고 예쁜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가정들, 자는 아이들을 깨워 모두 데리고 나오는 가정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어서는 가정들... 민족도 언어도 피부 색깔도 모두 달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들처럼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가정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연결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둡고 외롭고 소외된 그 곳, Lodi street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Lodi mission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였고, 그 위로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올해 Lodi mission에서 우리 교회 유스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패키지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위

로를 나누고, 각각 맡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주었던 그 섬김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삶에 아름다움 열매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섯 동안 매일 2시간 정도의 섬김으로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을 섬겼습니다. 이는 지난 14년간 이 거리를 바라보며 이웃에 와 있는 우리의 열방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보면 뒤따라 달려오는 아이들, Lodi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난민으로 왔지만 이제는 스텝이 되어 함께 섬기는 한 유스 고백, 식사 한 끼라도 퍼주고 싶어 하는 교회 직분자들, 적지만 조금씩 조금씩 보내오는 헌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이 사역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120여명 낱짓 모이는 작은 한인교회입니다. 교인의 절반은 유학생들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교회 재정도 아슬아슬합니다. 무조건 퍼주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해서, 일꾼들이 없어서 그 사명을 하지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난민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상도 주셨고, 재정도 채워주셨고, 일꾼들도 보내 주셨습니다.

난민들이 불쌍하고 어려워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열방, 땅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10면으로 계속)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바울의 말씀은 장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를 위해 돈을 쓰라는 뜻이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집 지지 말게 하라 이는 잠과 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딤후5:16).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자식들을 교육해야

한다.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무절제에 대한 시험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잘못해서 목사들이 넘어지면 자신과 교회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재물을 쓰되 육체적 수단이 제공할 수 있는 비율만큼만 재물을 위해 쓰고 교회적 수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교회봉사를 위해 바쳐야

할 것이다.

결과 욕은 우리에게 재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성직자의 재력이라 해봤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재력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눅16:19). 만약 비유 속의 부자처럼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재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재물을 멸시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렇게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

기 부정을 설교하는 사람은 양들 앞에서 이 덕을 실천해야 한다. 목회자나 그의 양들은 다같이 “주님께서 쓰시도록” 거룩하게 바쳐진 자들이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중으로 분열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중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불합리한 기대에 일일이 다 부응하지는 못한다 할

지라도 하나님과 양심과 모든 의인들의 기대에는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골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장 큰 적은 사탄임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목사가 양들의 파멸에 동조한 데 대해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의 죄는 정상이 참작되지 않는다. 그대는 말하지 않아 양들이 영생을 놓치고 영벌

에 빠지게 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살비아누스(Salvianus, 390-484)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만큼 더 구원을 무시하는 자는 없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경멸하는 자와 같다.

hyojungyoo2@yahoo.com

동부교계 게시판

호산나대회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이정환 목사)가 주최하는 호산나대회가 9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3일간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한별 목사(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
▲문의: (201)587-3999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32기 개강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 이사장 한재홍 목사)이 운영하는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32기 훈련이 8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열린다. 장소는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이며 선교관련 유명 강사들이 초청된다. 등록비는 100달러. 훈련을 마치고 11월 중에 단기선교를 갈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선교지 방문자에게는 항공료를 보조한다.
▲등록문의: (917)963-9356 김경열 훈련원장, (646)220-8222 이형근 사무총장

글로벌뉴욕여목연 이웃사랑 찬양축제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김희숙 목사) 제 2회 이웃사랑 찬양축제가 9월 19일(주일) 오후 5시 가나안침성교회(김여호수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962-5060,

이영환 목사 초청 부흥성회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이영환 목사(장자선교회 대표, 한밭제일교회 원로) 초청 부흥성회를 8월 16일부터 사흘간 "믿음은 꿈이요, 선포요, 기도다!"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화, 수 새벽 6시, 오전 10시 세미나로 진행한다.
▲문의: (917)963-9356

가족관계 감정훈련

패밀리리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18기 가족관계 감정훈련이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 금요일 오후 7-9시(미동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세션은 1. 내 감정에 정직해지기 2. 내 마음이 아프구나! 3. 아이 마음이 아프구나! 4. 우리 가족 마음이 아프구나! 5. 엄마,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6. 엄마, 내게 왜 그러셨어요? 7.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8. 아! 이제 같이가 보이구나! 대상은 청소년 및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강사는 임옥순 임양택 부부카운슬러. 등록비는 200달러.
▲문의: (201)242-4422

생활/비즈니스 영어강좌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는 가을/봄학기 초급, 중급, 고급 레벨에 맞춰 생활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성 이민자에 한해 제공한다. 15주씩 짜여진 각 학기에서는 회화에 중점을 두고 문법 및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를 일주일에 8시간씩(하루 2시간) 진행한다. 수업은 무료이며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30명.
▲문의: (917)887-9173, eunsil.lee@kafsc.org

아는게 힘이다...

(5면에서 계속)

그는 "구속된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석방되며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막는데 더 많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데, SB 357은 그 정반대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이 더 위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Doug Bennett 박사는 의회증언의 기회를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어슬렁거리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며 인신매매범이 캘리포니아 거리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더 많이 팔아넘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SB 357은 8월 16일 이후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또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올바른 정치리더들을 뽑아야 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하우스)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 2차 준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임시의장 안창의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 2차 준비모임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들이 베이사이드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목사회증경회장단 조직을 박차를 가했다. 이 모임은 2차 모임으로 지난달 6일 현 뉴욕목사회 임원이 초청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증경회장단 조직에 따른 것.
증경회장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 48회기 47명(조정철 목사는 2회기 회장 역임)의 회장 중에 13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한국 및 미국지와 타주에 있는 증경회장들이 11명이며 현재 23명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이날 안창의, 이병홍, 한재홍, 정순원, 이만호, 이준성 목사 등 6명만 참가했다.
회의를 통해 연장자인 안창의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정순원 목사를 임시의총무로 증경회장단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부 예배는 정순원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만호 목사, 설교 안창의 목사, 권면 한재홍 목사, 축도 이병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간담회와 만찬이 진행됐다.
안창의 목사는 로마서 12장 전체를 교독했으며, 이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인건설협회가 뉴욕나눔하우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웨체스터 거주 손씨 1만 달러 쾌척 뉴욕나눔하우스에 한인건설협회도 3400달러 전달

지난 7월 29일 웨체스터에 거주하는 Sohn씨가 한인노숙인 쉼터구입 후원금 1만 달러를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인 뉴욕나눔하우스(구 나눔의 집, 대표 박성원 목사)에 전달했다.
또 30일에는 한인건설협회(회장 서영교, 이사장 최자령)가 후원금 3,400달러를 나눔하우스에 전달했다
박 목사는 팬데믹으로 더 많은 한인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각계각층의 한인들과 단체, 교회들이 한인노숙인 보급자리 쉼터 구입을 위해 십터마련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하우스)

사역보고 및 이철희 목사 환송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모임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가 8월 5일 오후 12시30분 플러싱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팬데믹 기간에 진행된 사역을 보고했으며 그동안 서기로 수고한 이철희 목사의 한국 귀국을 환송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미주동부지회는 지난해 9월 이후 6,450달러의 개인 및 교회의 지원이 있었으며, 사역 및 선교보고서 발송 등으로 3,242달러를 지출했다.
특히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를 지원해 이철희 목사가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속에서도 멕시코 유카탄 지역 농아인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마스크를 전달하는 기회도 가졌다.
국제사랑재단은 2004년 한국에서 창립돼 현재 총재 김삼환 목사, 이사장 김승화 목사,

대표회장 김영진 장로가 섬기고 있다. 2009년 미주동부지회가 설립돼 현재 지회장에 이병홍 목사, 장석진 목사가 후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제사랑재단은 북한의 결핵 어린이의 의약품과 고아원 분유 보내기를 중심으로 동남아와 아이티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115 사랑나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0달러면 북한 어린이 1명 1달 식량이 되며, 10달러면 씨앗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 동남아 주민 1명의 1년 식량이 되고, 50달러면 아이티 빈민 가정에 염소 한 마리를 기증해 한 가정의 도울 수 있다.
사역동참문의는 이병홍 목사 (917-224-2000, johnbhee@hotmail.com)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시라쿠스 한인교회 난민사역이야기

(9면에서 계속)
땅 끝까지 가서 만나야 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민을 정치 사회적 관점이 아닌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한인 교회를 세워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와 있는 열방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열방,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요청이며, 교회에 주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남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위로 되기를, 그 자녀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 이시로다"(고후1:3,4).
▲연락처: (315)559-5345 hopegive@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h3>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1(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8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www.kf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목회: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양 개역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50 주일학교 오후 1:50 장년예배 오후 3:4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환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짐바부웨 신학대학 교수</p> <p>Tel: (52)3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4천107인분 식사제공 17개 식당 참여 미주복음방송 미카, 만나밀 한끼나눔 프로젝트 결산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이하 미카)는 8월 5일 남가주지역 한인 기독교 언론사를 초청해 나눔 On(온)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만나 밀(Manna Mill) 한끼 나눔' 프로젝트에 대한 결산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미카와 복음방송이 실시한 만나 밀 한끼 나눔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언론사 간담회 후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미카는 선한정지기교회, LA 은누리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씨드교회, 동양선교회, 사랑의빛선교회, 유니온교회 등 남가주지역 한인교회 가운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어떻게 하면 이민 교회와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중 팬데믹 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섬기기 위해 '만나 밀 한끼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식당의 협력으로 누구나 하루 전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나 웹사이트(www.mannamill.com)에서 주문하고 다음날 점심에 픽업할 수 있도록 했다.

결산 보고에 따르면 '만나 밀 한끼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4천107인분의 식사가 제공됐으며, 남가주밀알선교단에 340인분, 샬롬장애인선교회에

360인분, 방주교회에 450인분, 새생명양로보건센터에 270인분, 케어양로원센터에 217인분 등 총 5천744인분의 식사를 배부했다.

이를 위해 미카 소속 교회에서 5만8천430달러의 재정을 모았고, 동부 LA Hans BBQ Teriyaki, Johnny's Shrimp Boat, LA 코리아타운 시누랑을 케랑, 웨스턴 도마칼국수, 카페 네모, 신강서면옥, 윤이밥상, 죽향, Ans Chan Bang, 오렌지카운티 Kabuki Japanese Restaurant Brea, King's Teriyaki Grill, Oh Mama Kitchen, Poke Tiki, Tokyo Teriyaki & Sushi, 맛있는 밥상, Boba Yolo, Waba Grill-Foothill Ranch 등 총 17개 식당이 참여했다.

이영선 목사는 "처음 실시했을 때는 반응이 미온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많

아졌다"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연장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며 아름답게 행사가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한정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는 "코로나19로 각 교회마다 현장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학생들과 청년들이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미카에서 함께하는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라며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을 했으며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어서 섬김의 대상이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 가족야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선후배 만나 격려와 사랑 나눠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 동문가족야유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조건갑 목사)의 동문가족 야유회가 8월 2일 오전 10시 그리피스공원에서 열렸다.

화씨 9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탓에 참가자는 40여 명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단절됐던 동문들과의 해후가 그리웠다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끼리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다정한 자리였다.

이날 야유회는 신병욱 목사(총무, 로스펠리즈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지성은 목사(부회장, 새생명교회)의 기도 후 김영현 목사(기감 은퇴)가 '버킷리스트'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은퇴 후에는 현역 때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 딱 귀찮기는 것은 하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거 하나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버킷리스트란 흔히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한다. 사도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말하자면 부활이 바울 인생의 버킷 리스트였다. 우리 모든 동문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자. 바울처럼 우리들의 희망은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는 부활에

송 목사는 "여러 채널을 통해 섬김의 대상을 찾았는데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돼 그분들을 섬기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마음과 뜻이 모여져 지역사회에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고현중 목사는 "팬데믹으로 누구보다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한인 가정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점심 식사와 더불어 우리 이웃들과 대화하며 사랑과 관심을 전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영선 목사는 "교회는 물론 식당들까지 섬김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연합사역과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이 계속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그레이스신학대 학생모집

그레이스신학대학원(총장 윌리엄 카터프 박사)은 2021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모집과정은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박사과정(D.Min)이다. 가을학기 강의 일정은 세계선교의 성경신학(8월23일-10월17일, 교회개혁과 성장학(10월18일-12월18일)이다. 그레이스신학대학원은 ATS로부터 100% 온라인 수업을 승인받았다.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각종 장학금제도가 있다.

▲문의: (574)334-7980

남가주웨슬리교회 심령부흥집회

남가주웨슬리교회(담임 박해성 목사) 코로나 회복을 위한 특별 심령부흥집회가 '거듭 났으면 자라 감시다(벤전3:17-18)'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고영복 목사(서울 신원동성결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3일(금) 저녁 8시, 14일(토) 새벽 6시, 저녁 8시, 주일 낮 11시 30분이다.

▲문의: (909)397-5737

늘노래합창단 단원모집

늘노래합창단(지휘 전성진 교수)이 단원을 모집한다. 늘노래합창단은 이민생활에 힘들어하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다. 연습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로템장로교회(1759 W. Broadway, Anaheim, CA)에서 갖는다.

▲문의: (714)659-5696, (847)846-9988

전성진 교수 찬송교실

전성진 교수(에반겔리아대학교) 찬송교실이 8월 6일(금)부터 9월 24일(금)까지 열바인중앙교회(17702 Cowen, Irvine, CA)에서 열린다. 8주 과정으로 열리는 찬송교실의 커리큘럼은 △8월 6일 하나님은 주신 목소리 찾기 △13일 찬송 부르는 자세와 Solfa를 이용한 찬송보는 법 △20일 박자와 리듬을 살려서 찬송 부르는 방법 △27일 찬송 부를 때 목소리를 풍성하게 하는 법 △9월 3일 셀렘, 템포 등으로 찬송의 효과를 살리는 법 △10일 감정을 넣어서 찬송을 부르는 방법 △17일과 24일 실기연습 등이다.

▲문의: (714)623-1811, (847)846-9988



샬롬장애인선교회 주최 '힐체어에 생명의 양식을 심고' 온라인 자선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힐체어에 생명의 양식을 심고'

샬롬장애인선교회 제18회 연례콘서트 온라인으로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한 제 18회 연례콘서트 '힐체어에 생명의 양식을 심고' 온라인 음악회가 8월 8일 오후 7시 유튜브를 통해 방영됐다.

박모세 목사는 "제 18회 연례기금마련위한 콘서트를 열게 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린다. 본 선교회는 창립 이래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겼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사랑의양식보내기 사역을 추진했고 18개국 5만여 명에게 양식 공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금년 새로운 프로젝트 '힐체어에 생명의 양식을 심고'를 시작했다. 이 사역은 오직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선교지에서 찾아서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를 위해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음악회는 테너 오위영 목사, 소프라노 이영주 사모, 피아노트리오(피아노 안정희 바이올린 김정아, 첼로 김원선), 보컬리스트 배우은, 박모세 목사가 출연하여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12명에 200달러씩 장학금 지급

한미특수교육센터 2021 드림아트 시상식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는 2021 드림아트 시상식을 7월 31일 오전 10시30분 소스물에서 가졌다.

로사장 소장은 "이번 행사가 주는 의미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개발시키고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며 "한인 뿐 아니라 타인종도 참여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도움을 준 것, 그리고 그로인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 말했다.

박경태 LA총영사는 "2005년 한국교육부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며 "작품을 보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드림아트 대회의 주제는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한 계절에 대한 자신의 경험 또는 표현을 작품에 담았다. 4월과 5월에 걸쳐 총 64명이 응모했으며 12명에게 2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주최한 2021 드림아트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총 후원금 1만3천200달러 조성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캠페인 종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케서린 염)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케어팩'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총 1만3천200달러가 모금됐으며, 타겟 기프트카드, 더플백, 백팩, 생활용품, 의류 등이 후원품으로 들어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모금된 후원금으로 100개의 위탁아동 케어팩을 만들기 위한 용품 및 기

프트카드를 구매했으며, 지난 7월 24일 30여명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어팩을 만들었다.

위탁아동 케어팩은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될 위탁아동을 위한 필수용품으로 구성된 가방이며, 연령별, 성별로 총 10 종류를 만들었다.

케서린 염 소장은 "한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줘서 당초 목표액인 1만5천 달러 가까

이 달성하게 돼 감사하다"며 "한인가정상담소 소설워커들을 통해 위탁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이날 만들어진 케어팩은 한



한인가정상담소는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캠페인을 펼쳤다

4단계라도 수용인원 10%·99명까지 대면예배 한교총 “미흡한 개선안 마련...뒤늦어”

정부가 6일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되, 종교시설에 내려진 방역 지침은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같은 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꺾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히 뜨겁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종교시설은 4단

계에선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참석 가능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정해 좌석 규모가 100석이 넘는 곳은 최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같은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공간별로 이 같은 수칙을 적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었으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신교인 82% “자녀 있어야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1000명 설문...무종교인 긍정응답 65% 그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74%가 ‘자녀가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20대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48%인 데 반해 60대 이상 응답자 중

같은 답변을 한 비중은 87%에 달해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30대 응답자의 61%, 40대의 76%, 50대의 86%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2%였고 천주교인은 86%, 불교도는 83%였다. 반면 같은 대답을 한 무종교인의 비중은 65%에 그쳤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 협력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 중심으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로는 ‘안정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가 60%로 가장 높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49%)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30%) 등이 꼽혔다.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61%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50%)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23%) 등 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중 52%만이 ‘그렇다’고 답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천주교인의 54%, 불교도의 56%, 무종교인의 70%가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예자연, 대면예배 일부 완화 비판

“코끼리에 비스킷 하나 던져주는 행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허용 인원 완화 조치에 대해 ‘코끼리에 비스킷 하나 던져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되, 종교시설에 내려진 방역 지침은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9일부터 같은 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예자연은 8일 성명을 통해 “정

부는 아직도 자신의 권력과 명령으로 교회 인원을 통제하고 예배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번 10%의 비율에 99명 한정하는 방안이 바로 이 착각 속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과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숫자 놀음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도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이

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 협력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바 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 중심으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 교계 연합기관 통합에 나선다

미래발전위원회 내 기관통합준비위 구성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출범한 교계 연합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교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과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미래발전위원회’ 내에 실무협상을 책임질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조직·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발전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한교총 제4회 정기총회에서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설치·결의된 바 있다.

한교총은 이날 미래발전위원장에게 소강석 대표회장을, 기관통합준비위원장에 김태영(백양로교회) 목사를 각각 선임했다.

한교총은 직전 한교총 대표회장이었다던 김 목사를 실무협상 책임자로 추대한 것은 대표회장 직무 수행 당시 그가 보여준 회원

교단과의 원만한 소통, 정부와의 협상 능력, 그리고 통합 파트너인 한기총 및 한교연과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한교총 7대 교단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구성하고, 모든 교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분열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월 리더십’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오는 15일 내부 상임회장단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통합 추진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성커플·비혼동거, 법적가족 인정 안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청원 9일 만에 6만3000명 넘어

국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9일 만인 4일 오후 6시 현재 6만 3000명을 넘어섰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 이모씨는 지난달 27일 청원을 시작하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혼하지 않은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이 되도록 하며 동성애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한다”면서 “개정안은 인륜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며 8월 중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

일부일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양성평등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이미 현행법상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있다”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문제는 개정안이 법적 가족에 비혼 동거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남녀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포함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 머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원평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준숙 의원이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진짜 이유는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만들려는 데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 대신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법적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제2조에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까지 신설했는데, 이것은 동성결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청원은 10만명이 채워지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다.

“코로나 뚫고 2033년까지 100만 교회설립”

여의도순복음교회-세계하나님의성회 ‘MM33’ 연약 재확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세계하나님의성회(총회장 조지 우드 목사)와 함께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 선교사역의 위기를 뚫고 2033년까지 전 세계 곳곳에 100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펼쳐나간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8일 세계하나님의성회의 ‘MM33(His Mandate, our Mission)’ 연약을

재확인하며 세계 선교를 통한 예수 복음 확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M33’ 연약은 예수 승천 2000주년이 되는 2033년 오순절까지 세계하나님의성회 소속 교단·교회가 연합해 100만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7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하나님의성회 정기총회 때 선포됐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MM33’ 연약에 담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2033년 오순절까지 부흥, 전도, 교회 개척, 제자도 4개 사역에 집중해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지역 성회 별로 서로의 경계를 넘어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사를 최대한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해 복음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건강한 목회자

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세워 세계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대를 넘는 리더십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며 돕기로 했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내년 9월 27-30일 개최 예정인 ‘세계선교회의와 2023년 10월 12-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에서 지역과 국가별 코디네이터(담당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까지 100만 교회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립·채택한 뒤, 2026년부터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세계하나님의성회 각 지역 총회장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세계하나님의성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이사인 이영훈 목사도 “2033년 오순절은 세계하나님의성회가 하나님과 맺은 ‘MM33’ 연약을 달성하는 해로 세계 교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오순절 신앙의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전 세계에 100만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을 기념하자”고 말했다.

세계하나님의성회 교회의 연합기구로 약 37만 교회와 7000만 성도가 속해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 소속으로 2010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낙태법 공백...개정안 심의 서둘러야”

64개 시민단체 내달부터 40일간 기도 캠페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그러나 국회는 낙태죄 관련 법안의 입법 시한인 지난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틈타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생명존중운동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적인 낙태반대 기도운동단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는 한국에선 처음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개신교, 천주교계와 함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펼친다.

개신교 대표로 행사를 진행하는 서울화아름다운교회 대표(목사)는 4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금식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낙태 종식과 낙태산업 종사자들의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전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단체”라며 “지금까지 64개국,

900여 도시에서 10만여명의 봉사자와 2만여 교회가 참여해 8000번 넘는 기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10월 31일까지 40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개신교는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회를 진행하며, 나머지 요일은 천주교에서 진행한다.

서 대표는 “이번 기도 캠페인에선 준비된 팻말과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와 금식 등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범조항 개정 기한이 8개월 넘게 지났음에도 국회에선 여전히 개정안 마련이 담보상태다. 종교계,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미혼모단체, 입양단체 등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낙태죄 전면폐지 반대운동을 펼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삼입

대표 이봉화)는 국회에 낙태죄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지난달 28일부터 ‘생명 트럭’ 운행을 시작했다. ‘생명 트럭’은 낙태반대와 생명 존중 문구를 트럭에 부착하고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를 돌며 국민에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지키자는 염원을 전한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2일 낸 성명에서 “지난 6월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순위가 뒤로 밀려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정부의 속 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법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나 정부의 눈치 보기 행태는 실망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장치는 아무것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녀에 신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석진 본부장은 “우리가 지난해 보내려고 했던 물자들이 지금까지 북한에 가지 못했다”면서 “최근 유엔기구가 북한의 곡물 부족량을 86만t이라고 발표해 더욱 마음이 급하다. 하루빨리 인도적 물자들이 북한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기아대책 역시 매년 아동들을 위한 식량과 구급재, 유실수 등을 지원한다. 중대한 상황이다. 기아대책은 지원이 가능해지면 즉시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호두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다. 호두나무는 북한의 황폐한 땅과 산림을 복구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자립기반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차선호 인도적지원팀 차장은 “남북 연락채널 복원, 통일부의 대북 지원 승인 등으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되는 기쁨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동포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10개월 만에 교계 대북지원 물고

구호단체들 협력사업 활기...남북 연락채널복원 이어

통일부가 10개월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교계 구호단체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2개 단체의 물자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 2일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만나 “인도주의 협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대북 지원을 하지 못했던 구호단체들은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후원자들을 독려하는 등 지원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대다수 대북 구호단체는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에 물품을 보내지 못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정부가 대북 지원 승인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안홍선 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은 3일 “지난해 8월 북한에

마스크와 소독용 이산화염소분말을 보낸 게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하나누리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목도리가 중국 물류창고에 쌓여 있다. 그동안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물자를 보낸 단체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출한 이는 10개월이 넘었다.

그사이 북한에서는 식량난, 경제위기, 수해 피해 등의 소식이 들려와 구호단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통일부가 물자 반출을 승인하자 구호단체들은 반색했다.

지난해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던 삼복지재단은 곧 허가가 떨어져 북한에 물자를 보낼 수 있을 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용품과 영양식은 이미 포장을 끝내고 컨테

mission 선교의 창 (17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

우리 개신교에서 현대선교를 말할 때 랄프 윈터 박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2005년 "Time Magazine"은 윈터 박사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2008년 "북미선교지도자회의"에서는 선교발전에 남긴 그의 업적을 기려 평생공로상(Lifetime of Service Award)을 수여했다. 그는 확실히 20세기 후반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교계의 거장이었다. 그는 선교사이자 선교훈련가, 선교학자로서 30여년을 세계 선교에 헌신해왔다. 그는 선교전략,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선교적 과업을 명확히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밑바탕으로 세워진 선교전략들은 지금도 여러 선교지에서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 생애

랄프 윈터 박사는 1924년 LA에서 휴고/헤이절 윈터 부부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공학기사가 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에 입학했다. 이후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을 거쳐 코넬대학교에서 언어학, 인류학, 수학통계 분야의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신학교육은 프린스턴신학

대회원에서 했다. 대학원을 마치기 전 그는 간호사 훈련을 갖 마친 로베르타 헬름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나중에 과대 말라의 마야 인디언 선교에 헌신해서 10년간 일하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로 사역 중 맥카브란 박사의 초청으로 Fuller신학교에서 선교대학원 교수로 10년간을 재직했다.

윈터 박사는 Fuller에서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미국 세계 선교 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는데 헌신했다. 윈터 박사는 만년에 로베르타 여사를 사별한 후 바

2. 사역

윈터 박사는 역사적 모임으로 기록된 1974년 제1차 로잔

교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글로벌기도다이제스트(Global Prayer Digest), 퍼스펙티브스 훈련과정(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등을 창립하고, 창간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세계선교 센터의 최고 책임자로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윌리엄캐리대학교의 최고 책임자로 섬겼다. 또한 전방개척선교회(FMF: Frontier Mission Fellowship)의 대표로 헌신하는 동시에 저술에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저서로는 "미션퍼스펙티브",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가 있으며 편저로는 "퍼스펙티브스1, 2"가 있다.

3. 당부

윈터 박사는 2011년 11월 방콕에서 개최된 ASM(Asian Society of Missiology, 아시아 선교학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이때 서구선교의

사 파송 ⑧선교의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함 ⑨질병의 근절이 아닌 치료로 그침 ⑩전쟁이 아닌 평화만 생각함 ⑪과학을 적대시함 ⑫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복음전도 등이다.

이 중에서 우리 한인 세계선교는 무질서한 선교사 파송, 몰랑주의적 선교, 전문인보다 목회자 중심 선교, 세상의 변화에 뒤쳐진 사역 등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4. 평가

그의 공로는 첫째로 이론가로서 역할이다. 선교라는 어려운 주제를 체계화하고 저변을 넓게 했다. 그는 선교신학 측면에서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구분하면서 전략적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을 균형 있게 정리했고, 세계 복음화의 남은 과업을 명확히 하면서 교회선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로 선동가로서 역할이다. 교회의 선교방향을 선회하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따라 미국 세계선교 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는데 헌신하게 된다. 그때 그 캠퍼스를 구입하는데 1,500만 달러가 필요했으나 수중에 있는 돈 100달러를 계약금으로 치루고 나머지는 수년간 모금해서 충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했다.

맺음 말

새들백교회의 리 워렌 목사는 추모예배에서 "저는 이 분을 거의 40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존경해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교인들을 위해 자리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렇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선교를 각인시켰고 동원되도록 길을 제시했다. 그의 비범함은 세계선교를 내다보는 혜안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체계정립을 했으며 나아가 본인 삶의 마지막까지 강조해 온 전시생활양식(wartime lifestyle)의 실천에 있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전략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남은 것은 단 두 벌의 양복과 구두가 전부였다. 그는 세계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략적인 검소함을 추구해왔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선교지략가였음에 틀림없다.

앞으로 세계선교를 위한 미완성 과업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엇을 어떻게 헤쳐 가야 한단 말인가? 위기는 기회이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랄프 윈터 박사의 이상을 품고 세계선교를 위한 바통을 이어 가야 한다. 제 2, 3의 정출어람(靑出於藍)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jrson007@hanmail.net

랄프 윈터 박사는 금세기 최고의 선교 이론 및 전략가이다. 그의 대표적 업적은 미전도 종족과 전방 개척선교 분야를 창안한 것이다. 현대 선교는 그의 선교이론을 사역현장에 접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회에서 미전도종족과 미개척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렸다. 이후 1976년 설립한 미국 세계선교 센터와 윌리엄캐리대학교(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를 기지삼아 전방개척 선교운동을 전개하며 세계 선교 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는 윌리엄캐리 국제대학(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캐리 출판사(William Carey Library), 미국선교학회(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개척선교회(Frontier Fellowship), 개척선

실수 12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선교가 향후 서구 선교의 실수에 대해 무조건 모방하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①대학교가 아닌 성경학교를 설립 ②땅 위의 천국'이 아닌 '천국에의 구원'만을 강조 ③교단이 선교기관을 거치지 않고 선교사를 직접 파송 ④전문 선교보다 일반 선교에만 치중 ⑤현지의 헌신적인 신자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부르며 서구교회와 동일시하게 함 ⑥선교사 없이 물질만 후원 ⑦장기 선교사 대신 단기 선교

도록 유도했다. 미전도종족에 대한 정의와 전방 개척선교 운동의 두 대표적 쟁점(Issue)을 통해 세계선교계가 미전도종족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게 했다.

셋째로 교육가로서 역할이다. 북미 최대의 선교집회인 Urbana73에서 선교에 헌신한 이들을 돕기 위해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고안한 이후 30년 동안 이 훈련이 지속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적 열정을 가진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왔다. 넷째 행정가로서 역할이다.

넷째 행정가로서 역할이다.

넷째 행정가로서 역할이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⑨ 바보에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Cyprus,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로 이동합니다. 처음 만난 곳이 '살라미(Salamis)'였습니다.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 했던 선교팀은 섬을 가로질러 넘어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프로디데에게 노래를 바친다"고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Love), 미(Beauty) 그리고 풍요(Fertility)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는 구브로의 바보 근처의 바닷가 물거품 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유명한 구리 산지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라는 이름도 구리를 뜻하는 히브리

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의 부자였습니다. 구브로(Cyprus)는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년에 로마에 합병되었고, 기원전 37년에 로마원로원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5년경 아우구스투스 황제

다. 4세기 초에 거대한 비잔틴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AD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침략해서 교회를 비롯해 많은 유적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잔틴교회 터가 남아있고 꽃무늬 모자이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브로(키프로스)는 역사 속에서 부침이 많았습니다.

만 현재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쪽은 터키가 점령했고 남쪽은 그리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바보는 BC 58년경 로마가 지배한 후부터 구브로의 수도가 되었고, 로마총독 주재지였습니다. 바울 때는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이 로마의 총독으로 주재했습니다. 발굴된 비석에 의하면 41년부터 54년까지 '퀸투스(Quintus)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보에 주재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려던 바예수(Bar-Jesus)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 엘무마(Elymas)는 바울에게 꾸중과 훈계를 받습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저주에 따라 엘무마는 장님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을 계기로 바울의 이름을 사 용합니다. 즉 '사울'이 공식적으로 '바울'로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선교팀 리더가 바뀝니다. 이름순서가 바나바-바울에서 바울-바나바로 전환됩니다.

바보에 전해지는 전설 중에 하나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보에서 태장을 맞고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바울채찍교회 가 바보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채찍교회 옆에 '성 바울의 기둥'이란 뜻말이 있는데, 그리스어와 영어로 새겨진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기 위해 묶였던 기둥이라고 알려 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배를 다섯 번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배를 맞은 상황과 장소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바보에 '바울채찍교회'와 바울이 묶였다는 '성 바울의 기둥'을 통해 바보가 그 중의 한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른쪽으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바보에 있었던 신앙의 박해와 수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사울이 바울로, 리더가 바나바-바울에서 바울-바나바로 40에 하나 감한 배 맞은 곳... '성 바울의 기둥' 남아있어

어 '키프리오스'에서 나왔습니다. 구브로의 면적은 제주도의 5배 정도인데 지중해 섬들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브로에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특히 로마가 지배했던 이후 1세기에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브로에 성공한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마가

시절 바보 지역에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는데 곧 로마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구브로에는 옛날 로마시대의 성(城)이 아직 남아 있고, 성 뒤로는 왕의 무덤 등 고대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로마시대 생활상을 담은 모자이크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

647년과 802년에 이슬람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1191-1571년에는 십자군들과 베네치아인들이 점령해 라틴 문화와 라틴 교회를 따르도록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1571-1878년까지 오스만투르크가 지배를 했고 1878-1960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 독립했지

큰 충격을 받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전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구브로 섬의 로마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 이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에서 행한 영적 능력과 이적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참 중보자의 자격(눅2:21-24)찬143장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서 참 중보자로서의 자격조항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21). 언약백성의 표인 할례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은 구약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심을 강조합니다. 참 대속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초태생이십니다(23). 첫아들을 바친 정결예식 역시 그의 참 중보자되심을

강조합니다. 장차 죽음과 부활의 초태생인 그만이 자기 백성의 초태생 됨의 근거입니다. 셋째,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23-24). 부모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그 아기는 참 중보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담담히 나아갑시다.

화 시므온이 받은 계시(눅2:25-35)찬480장

예수탄생의 증인, 시므온은 메시아에 관한 은혜를 증거합니다. 첫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곧, 구속을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문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지시를 받고 기다리다 그 날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며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마리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 아이가 구속을 이루실 분이

심을 선포합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 성취로 오신 대속주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셋째, 그는 온 세상의 택한 백성의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주적 구원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창12:2). 시므온처럼 만민의 구원주이신 예수를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수 만나 여선지자의 증거(눅2:36-38)찬405장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 인나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첫째, 성전에서 주를 섬기던 인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주를 섬겼습니다(36-37). 주님을 섬길 자는 반드시 산제사를 드려야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전인을 바쳐 목숨을 내대는 삶입니다. 둘째,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다(38). 하

나님의 정한 때에 정결예식을 행하는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셋째, 그녀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38).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에게 열심히 전합니다.

목 예수 성장(1)(눅2:40)찬94장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그는 강해지셨습니다. 이것은 신체 발육보다 전인의 중심이 영적으로 강하여 그 영향이 전인에 미친것을 강조합니다. 세례요

한은 영이 들판에서 강해진 것에 비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영이 강해졌습니다. 가난과 고난은 영이 강해지는 특별한 종의 무대입니다. 현실에 당하는 고난의 환경은 강한 영의 소유자가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복된 은혜를 누립니다.

금 예수 성장(2)(눅2:40)찬506장

또 다시 그는 충만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첫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본으로 함은 세상적 지혜를 지배하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속자, 대속자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빈틈없는 지혜로 행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 받는 어린양으로 모든 일을 지혜로 행하심을 생각해 합시다(사53:10). 둘째, 구속은 성자의 지혜의 충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그 안에서 참된 지혜자로 삼시다.

토 예수성장(3)(눅2:40)찬204장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첫째, 은혜가 지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인자가 인간 예수로 성장함이 기적입니다. 그때 전능자의 능력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인양성의 연합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마리아의 품에 잉태되는 신비로운 연합처럼 성장 과정에도 성

령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인성이고 어디까지가 신성인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은혜를 힘입은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습니다(눅4:18-19).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신 그분 안에서 은혜생활을 힘씁시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1)

III. 종교개혁 시대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1. 역사적 고찰

중세교회의 타락은 새로운 개신교를 낳게 되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라고 하면, 그 개혁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대학 성당에 카톨릭 교황청의 타락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당시 루터가 이 질의서를 만든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하거나 교황에 대해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 시대 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대두되었던 면죄부를 옹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지도자들을 향한 질의서였던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과 이름 있는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토론을 벌이고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혀내려는 의도였다. 결국 그것은 당시 발달한 인쇄술 덕분에 두 주일도 채 안 되어 삼시간에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결국 이 일 이후 마틴 루터는 자신의 근본적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자신이 상상하지 못

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은 사상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게 되는데 특히 루터는 음악을 전면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루터는 기악, 다성음악 등 다른 개혁자들이 기피했던 것까지도 수용했던 것이다. 그는 카톨릭 음악까지도, 카톨릭 작곡가까지도 자신의 예전(Liturgy)에 맞다면 모두 수용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루터는 그 당시까지 발전되어온 모든 음악적 요소를 다 수용한 반면 칼빈은 오직 단선율만을 사용했고 악기의 사용은 거부하였다.

가사를 사용하는 면에서도 두 개혁자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는데, 칼빈은 오직 시편가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던 것에 반해 루터는 시편가를 현대 언어로 바꾸어 가사를 적용하였다. 루

종교개혁은 예배와 음악의 본질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결정적 계기돼 하나님 통해 “나” 를 말하던 것에서 하나님 통해 “하나님” 말하게 된 계기

했던 종교개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루터와 칼빈, 그들은 비록 성격만큼이나 서로 다른 예배관과 찬양관을 가졌지만 본질적인 예배와 음악의 개혁정신은 같은 맥락이었다. 정장복 교수는 종교개혁의 당위성 가운데 예배에 대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부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무리들이 시들어 나갈 때 교회는 병들고 인간의 심성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예전(Liturgy)을 세우고 초대교회 복음을 기초로 한 예배의 모형으로 되돌리려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터는 뿐만 아니라 시편가 이외에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등의 칸티클이나 또 새롭게 복음의 가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1523년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의 불길은 지피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그 해 7월 1일 마틴 루터를 따르던 두 젊은이 하인리히 뵘즈(Heinrich Voes)와 요한 에쉬(Johann Esch)가 화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루터란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었는데 1522년 이들이 속해있던 벨기에에 있는 앤트워프 수도원(Monastery Antwerp in Belgium) 전체가 공식적으로 종교개혁교리를 선택하고 가르치자 카톨릭 교황청은 그 안에 있는 뵘즈와 에쉬 두 수도승(Monk)들을 화형에 처하게 한 것이다.

루터는 예배에 관해 개혁자들 중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카톨릭의 미사에 여러 부분을 도입, 예전(Liturgy)을 구성하게 되었다. 1523년에 라틴어 미사(Formula Missae of 1523)를 만들게 되었고 1526년에 독일어 미사(Deutsche Messe of 1526)를 만들어 독일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일 모든 예배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접하게 된 루터는 이 부당한 사실을 모든 민중에게 알리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그의 처음 찬송가가 된 “A New Song Now Shall Be Begun”이란 곡이었다. 이 곡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음악 개혁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한 곡이고, 또한 로마교황청의 타락을 음악을 통해 저항한 곡으로 당시 종교개혁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개혁활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곡이었다.

칼빈은 루터와 다르게 중세 카톨릭교회의 모든 예전을 버리고 초대교회 예배를 그대로 도입하여 1538년 예전(Calvin Liturgy of 1538)을 만들게 되었다. 두 개혁자의 예전이 서로 다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시간이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옛적의 고유한 위치로 회복시킬 것을 그들은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곡이 주는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마틴 루터가 음악을 사용해 민중을 동요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알려 개혁의 피치를 빠른 시간에 세상에 널리 퍼트려 종교개혁의 불을 크게 지피는 계기가 된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한편 예배서의 찬양은 공히 중요함을 인식했지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온리피 메달링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 끝에 열렸지만, 반쪽짜리 대회가 되었습니다. 무관중, 비대면 올림픽입니다. 예전보다 올림픽 열기가 많이 식은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반대 속에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관중 올림픽이라도 참가국 선수들은 메달 경쟁을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선수가 메달을 따기도 하고, 기대했던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울고 웃는 올림픽 메달 소식에 때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피나는 훈련과 노력 끝에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메달이라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에 지쳐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말과 경주해도 이기는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여 이기겠느냐? 평안할 때는 무사하겠지만 강물이 흘러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렘12:5).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서 신앙의 경주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것과 견주어 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많더라도 상을 얻는 자가 따로 있으니, 상을 받도록 달음질을 하라고 합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이기고자 하는 자는 절제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니, 꺾대를 정해놓고 달리라고 합니다.

스포츠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면류관을 주게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가? 혹시 노메달 선수는 아닌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4:7-8).

bible66@gmail.com

... 교회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마틴 루터의 개혁에서 음악을 통한 사역은 실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한마디로 무서웠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였다. 교회역사가 토마스 패티슨(Thomas H. Pattison 1838-1904)은 실제로

루터의 음악은 그의 설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은 교회음악가 스티브 밀러(Steve Miller)가 당시 마틴 루터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직접 인용해 그 당시의 음악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영향력에 대해 김철웅 목사가 인용한 글이다.

"당시 예수회 소속이었던 콘제니우스(Conzenius)는 '루터의 찬양은 그의 글이나 설교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다. 스페인 카톨릭수도사인 토마스 예수(Tomas a. Jesu)조차도 마틴 루터의 음악이 유럽에 루터교단을 팽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당

시 마틴 루터의 음악은 일터에서,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벌판에서도 불리고 있었다고 서술한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예배와 음악의 본질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명

령하신 바른 찬양으로 회중들을 일깨워 개혁정신의 불을 지피고 그 안에 바른 말씀으로 회복시켜 개혁을 완성시키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나"를 말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 예배와 음악이 많이

다. 밀알은 특수하게 장애인에게 시선이 가있다. 군 선교도 아니요, 어린이 선교도 아니라,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손님으로, 혹은 객체로 소홀히 대접받아서 안 된다.

3. 밀알은 서로 사랑한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끔 싸우는 경우를 본다. 그럴 때면 일을 좀 못해도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일이 조금 더디더라도 화평하게 진행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개혁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서로 사랑하며 동역자 의식으로 일해야 한다.

4. 밀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 일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감임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밀알은 동역자와 신의를 지킨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동역자와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서로의 믿음이 없이는 동역을 할 수가 없다.

6. 밀알은 희생을 거부하지 않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생을 거부하면 열매가 없다. 재정적으로, 자존심 문제에 있어서, 희생이 필요하다. 밀알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miju92@gmail.com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3)



제 3절 뉴저지 밀알선교단의 5대 목표

뉴저지 밀알선교단의 3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일하고 있다. 이 목표는 뉴저지밀알선교단의 고유 목표이다.

1. 장애인 신학을 정립하여 교회, 신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행동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막스와 엥겔스의 '자본론'이라는 이론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단순히 동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얼마가지 못하여서 끝나버릴 것이다. 장애인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고 증명해야 한다.

2. 각 교회마다 장애인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선교는 밀알선교단 혼자 할 수 없다.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해야 한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장애인 선교에 동역할 수 있다. 그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장애인 부서를 세우거나 그렇지 못하면 장애인 선교를 위한 목장을 세워 기도하고 후원하면 된다.

장애인 선교는 비장애인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다. 값은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장애인 선교를 위한 목적은 그 교회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3. 세계 1000곳 이상에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와 선교단을

을 세운다.

세계 어디를 가나, 어떤 지역을 가나 장애인들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위한 선교단을 세워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한다. 그리고 그 선교가 지속될 수 있고,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게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를 세워 선교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한다.



장애인신학 정립, 장애인목장 및 1000곳에 선교단 설립 장애인 사역자 양성위한 장학금 확대, 밀알동산 설립

4. 장애인 사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확대한다.

장애인 사역을 위하여 일꾼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일꾼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장애인 선교의 성패는 사역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밀알은 그 일꾼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세계장애인 선교를 준비한다.

5. 밀알동산을 세운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단순히 영원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과 육,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공동체인 밀알동산을 세운다. 밀알동산은 영과 육 그리

제4절 뉴저지밀알의 10대 행동 강령

이 강령도 모든 밀알선교단과 뉴저지 밀알선교단이 함께 공유한다.

1. 밀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밀알선교단은 장애인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운동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에 있는 것과 같이 밀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첫 행동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밀알운동을 장애인 선교를 통한 하나님 사랑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밀알은 장애인을 사랑한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Theology, Ministry, and Leadership Ph.D. programs. Includes text about degree programs, study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university's research center.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초교파 복음주의 기독교대학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2021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캠퍼스 트랙: 2021년 가을학기는 비대면 수업

- 준학사과정 :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 석사과정 : 상담심리학, 음악학, 글로벌리더십
-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온라인 트랙 : LMS 무플 기반의 100% 온라인 수업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
-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월드미션대학교의 특징

- Moodle 기반의 하이브리드 수업
- 최고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 영성과 지성과 실천이 조화된 우수한 커리큘럼
- 그랜트(Pell & Cal)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 유학생 특별 장학금을 비롯한 유학생 서비스

ATS, ABHE 정회원

www.wmu.edu | (213) 385-2322 | admissions@wmu.edu